



### 충남도의회, 2022 지방의회 우수사례 '대상' 전수식 개최

충남도의회가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역대 최초로 '대상'과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좋은 입법을 위한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주제로 우리나라 최초로 입법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자치입법의 질적 향상과 지방분권 성숙에 상응하는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축한 성과를 높이 인정받았다.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은 "김찬배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도민을 위한 입법기관으로서의 의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실이다."라며 "앞으로 지방시대에 대비하여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제8기 지방의회 4년(2018.7.~2022.6.) 동안의 성과를 대상으로 전국 지방의회에서 58개의 사례(광역 42, 기초 16)가 제출되어, 1차 서면심사를 통해 결정된 17건 중 상위 9개 사례에 대한 발표



충남도의회 조길연 의장(왼쪽)이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한 충남도의회 김찬배 사무처장(오른쪽)에게 전수식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찬배 사무처장 외 충남도의회 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충남도청 제공)

최정근기자

### 조성환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생순환 통학버스 시범 운영 2023년 예산 50억 원 확보

#### 더불어민주당 정책사업으로 제안하여 예산 확보, 내년 1월중 추진 TF 구성 예정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12월 26일 경기도교육청 학생순환 통학버스 시범운영을 위한 예산 5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성환 의원은 늘어난 학생수로 인해 통학이 어려운 곳으로 배정받는 과밀지역 학생들과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지역 등의 학생들의 통학권 보장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책사업으로 학생순환 통학버스 시범 운영을 제안했다. 통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통학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 등과 운영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조 의원은 지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도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학버스가 적정규모 학교 육성, 돌아오는 농어촌 학교 지원, 경기도 학생 통학지원 사업에 근거하고 있으나 그 지원액과 방식이 제각각임을 지적한 바 있고 그 개선책을 요청하는 등 학생들의 통학 문제 개선에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학생순환 통학버스"는 지역 인근 학교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통학 버스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개념의 통학버스이다. 그 결과 학생들의 통학편의가 증진되고 예산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고 1개 학교만 지원해도 인근 학교들이 동시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다만, 현재 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제도의 충돌, 학생들의 승차 시 안전문제, 적합한 통학 노선 선정 등의 애로사항이 있어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도 지역별, 학교별로 많은 통학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경북도교육청에서는 2021년부터 초·중학교 입학 통학버스를 단위학교에서 계약해 운영하던 것을 통학버스 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교육청에서 운영하게 하고 있다. 이는 지역 실정에 맞게 공동운행을 활성화하고 통학버스 계약업무의 교육지원청 이

관으로 학교 업무의 직접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에 이 사업을 제안한 조성환 의원은 "실제로 타시·도교육청에서도 이미 학생순환 통학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도시와 농촌이 복합되어 있는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충분히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50억 예산으로 먼저 파주와 기타 시·군에서 시범 사업을 해 보면서 필요한 지역에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의 통학 문제는 어른들이 책임져야 할 당연한 과제이다. 반드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성환 의원은 특히, 학생순환 통학버스 지원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관심 있는 시군 및 학부모, 학생들과 해당 부서 등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내년 1월 중 TF팀을 꾸려 해당 정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할 계획이다.

조혜영기자

### 이용호 의원, 여당 예결소위 위원으로 전북도 국가예산 사상

#### 첫 9조원 시대 여는데 결정적 기여 등 호남 발전 예산 확보에 앞장

- 무주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세계잼버리 대회, 전주영화산업허브 구축 등 전북발전을 앞장질 신규사업,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광양항-울촌산단 연결도로, 순천대 첨단공학관 신축 등 호남권 신규사업도 국회심의단계에서 다수행거
- 국립합천대 산포니오케스트라 등 국립예술단체 국격에 맞도록 예산확보에도 힘써

사상 최초로 9조원을 시대를 연 전북도 예산안을 포함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호남 유일의 여당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무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사업 등을 신규로 확보하며 전북도 예산 9조원 시대를 여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또 "광양항-울촌산단 연결도로 구축, 국립 호남권 생물자원관 전시온실 조성, 순천대 첨단공학관 신축 등 호남 전체의 신규 사업도 적극적으로 챙겼다"고 했다.

특히 이용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남 공약사업과 호남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호남지역 주요 세부 사업은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 3억원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타당성 용역 5억원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36억원(총사업비 1

조 554억원) △2023 세계잼버리 지원 45억원(총사업비 846억원) △국립호남권 생물자원관 전시온실 조성 13억원(총사업비 37억원) △광양항-울촌산단 연결도로 타당성 조사 3억원(총사업비 3,118억원) △순천대 첨단공학관 신축 2.5억원(총사업비 125억원) 등 30여 건이 넘는 예산이다.

이 중 전북 무주 국제태권도사관 학교 건립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국회 단계에서 신규 예산이 확보되면서 태권도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태권도 국제 양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사업 신규 예산반영을 하면서 전북의 농식품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남 광양항 서측 배후단지 외 여수시 울촌 일산산단 연결도로 개설을 위한 예산 확보로 광양항 항만 배후 권역의 원활한 개발과 물류비용 절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용호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국격에 맞는 국립 예술단체를 만들기 위해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단, 국악방송, 국립합창단, 국립극단의 처우 개선 및 운영비 예산 증액도 관철시켰다. 이 의원은 "호남 지역구를 둔 유일한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지역사업을 행하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해왔는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게 되어 뜻 깊다"며, "무엇보다 호남을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내년도 예산에 담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회 확보는 여야를 떠나 힘을 합친 호남 국회의원, 단체장, 공직자들의 도움과 헌신 덕분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호남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남출기자

### 대구시의회 의장 신년사

존경하는 대구시민 여러분!  
출렁이는 파도와 같았던 다사다난했던 2022년이 가고,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지난 한 해 국내외 다중위기와 척박한 지방 거진 속에서 대구시는 공공기관 개편과 재정 혁신 대규모 투자유치와 먹거리 문제 해결까지 끊임없이 도전하며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증경하며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는 7월 대구로 편입되는 군위군을 중심으로 한 공항 신도시 개발과 배후 산업단지 추진, 50년을 앞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첨단산업단지 미래과업들을 힘차게 추진해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가겠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는 낱알이 커지고, 인구감소의 시계는 점점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고 노련하게 때론 담대하게 걸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 대구시의회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한 진정한 변화와 혁신을 시작할 수 없다는 본질을 되새겨 더 세심히 민생을 살피고 챙기겠습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대구시민 모두가 지혜롭게 새로운 내일을 열어 소망하는 일들 모두 뜻깊은 결실을 거두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 1.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이만규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교통신호등 및 바닥신호등 설치 추진

#### 밤에도 환하고 안전한 통학길 조성

더불어민주당 조철기 의원은 그동안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을 강화하고 충남시민 누구나 이용하는 교차로 횡단보도의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도로설계 가이드라인은 안전표지, 조명시설 등 안전시설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횡단보도 등 도로 구조적인 설계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말했다.

이에 어린이·청소년·고령자 등의 교통사고 증가 등 횡단보도 안전강화 및 편의 증진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충남시는 이러한 요구에 의한 대책으로 어린이·청소년·고령안전자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횡단보도 바닥신호등을 여러곳에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점차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 어린이·청소년들의 안전에 큰 도

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에만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통약자 부문에 추가적으로 LED바닥신호등 및 음성인식신호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D바닥형 보행신호등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대기선에 설치된 LED램프가 신호등에 따라 색이 바뀌어 보행자가 바닥을 보고 있어도 신호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스마트 교통안전시설이다.

특히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보행자들도 신호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차도와 보도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표

시해 보행자의 오출발, 지연출발 등 방지 및 운전자들의 주위도 환기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조철기 의원은 예산확보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지난해 도민 인식조사 결과가 보여준 신뢰도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 달라"고 설명했다.

바닥신호등을 설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시민성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바닥신호등이 설치되면 보행자의 신호인식력을 향상시키고 야간이나 우천시 시인성들의 주의를 더욱 높여 보행안전의 확보는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최정근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위원장, 국회가 가진 경험과 자산 지방의회 발전위해 적극 제공 요청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이 23일 국회 예산정책처장과 미래연구원장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경험 공유를 요청했다.

이날 만남은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이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인 박환희 위원장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성사됐다.

박 위원장은 조의섭 예산정책처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방의회 예산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는 국회와 같은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하면서 "국회가 운영중인 예산결산분석시스템을 전국 지방의회가 도입해 예산결산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장은 지방의회가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가 갖고 있는 다양한 정책자료와 시스템을 제공할 뜻이 있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표했다.

박환희 위원장은 "대한민국시도의

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장으로 당선되면서 17개 광역시도의회에 관련 시스템 공동도입을 약속했고, 이를 위해 최근 토론회와 결의대회를 가지는 등 차근차근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국회가 활용한 노하우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국회미래연구원 방문해 김현곤 미래연구원장과 만나 지방의회의 각종 정책개발 수요와 미래연구원 운영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박환희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안정적인 정책개발 역량과의제선점을 위해 국회미래연구원과 같은 지방의회만을 위한 특성화된 연구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미래연구원 운영 노하우를 지방의회에 적극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지방의회의 각종 정책수요에도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

미래연구원장은 "지방의회가 처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는 유익한 기회가 됐다"고 말하면서 "지방의회의 요청이 있다면 언제든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표시했다.

최광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 :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독일 2013-07-12 제호 :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6 | 등독일 :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 회 부:내선 (113)	부 등 선 부:내선 (117)
	경 계 부:내선 (114)	오 피 니 언 부:내선 (118)
	스 포 츠 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서울본사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셋길로 534 4층 411호**  
**경기본사 :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양적 팽창 공공 중심 정책에서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로의 정책 대변화 예고

대구시, 향후 5년간 일자리정책 김치가, '민선 8기 일자리종합 대책' 발표

# 홍준표 대구시장, 민선 8기 강력한 일자리정책 드라이브!



대구시는 민선 8기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미래 50년 대구' 도약을 향한 담대한 도전의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고 보다 나은 대구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강력한(Powerful) 일자리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대구시는 '민선 8기 일자리종합 대책'을 발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일자리 혁신도시' 비전 아래 2026년까지 미래 신산업 민간 중심 일자리를 대폭 늘려 올해보다 3.2%, 3.4%, 4만9천명 각각 늘어난 고용률 70%, 청년고용률 45%, 취업자수 117만명 달성을 구체적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 4년간 코로나19 등, 고용 위기에 대응해 시민들의 생활을 지키고, 양적 팽창을 위해 공공 재정 중심으로 펼쳐 온 일자리 정책은 미래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혁신에는 분명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 4년간은 이러한 한계를 넘어 공공 중심에서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통한 민간 중심 일자리 창출로 변화를 꾀하고, 자강 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 마련과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으로 핵심 기업 성장, 투자에 발맞춘 고용 정책으로 과감히 탈바꿈할 계획으로 일자리 정책의 강력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4대 주요 전략과 14대 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본격 취재진은 '민선 8기 일자리종합 대책' 발표하는 등 발표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강력한 일자리 정책을 위한 힘찬 시동을 걸고 있는 현안에 대해 집중해서 살펴 봤다.

### ▲ 대구 미래 50년 신산업 일자리 발굴

'대구 미래 50년 변명'을 위한 UAM,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BB 분야 5대 신산업 중심의 과감한 투자와 성장으로 새로운 민간 중심 양질의 일자리를 건인한다.

수도권 이남 최대 모빌리티 부품 생태계 기반 UAM 상용화 특화도시 조성, 통합신공항 배후 산단 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국가로봇 테스트 필드와 서비스 로봇 제조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헬스케어 의료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핵심 산업인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ABB 산업 성장을 바탕으로 일자리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글로벌 청년취업사관학교 등 미래 신산업을 이끌 산업 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부지공급부터 건축인·허가까지 신속한 원스톱 투자 협업시스템 구축으로 대기업과 신산업 분야의 투자도 적극 유치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민간 주도 단계별 창업 패키지 지원 강화와 동대구벤처밸리 중심 유망 창업기업 성장 가속화로 취업뿐 아니라 창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도 키워나간다.

### ▲ 경제·산업 구조 혁신으로 기업 성장

전통 제조업 등 지역 중소기업이 산업 대전환기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경제산업 구조를 과감히 혁신, 위기를 넘어 기업 성장과 함께 일자리를 키워나간다.

지역 산업과 변화의 흐름에 맞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을 통해 정책개발부터 고용혁신, 고용환경 개선 등 기업 지원과 함께 맞춤형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민생경제의 중요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 활성화, 금융지원, 골목 경제권 조성 등을 통해 자생력을 키운다.

스케일업 시스템 고도화로 스타기업 3.0으로 업그레이드해 기업 성장을 유도하고, 각 산업단지는 미래 첨단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거듭난다.

수성알파시티는 전국 1호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도심융합특구는 도심형 성장 거점으로 제2의 판교테크노밸리로 변화하고, 올해 마무리되는 제2단계 대구국가산업단지 조성 및 금호위더폴리스, 율하도시첨단산업단지, 경북대캠퍼스혁신파크, 대구국가스마트기술산업단지는 물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계 첨단산업단지 건립까지 대구의 경제·산업 혁신 지도를 새롭게 그려 일자리창출과 연계해 나간다.

### ▲ 세대별 계층별 촘촘한 맞춤형 일자리 안전망

고용 위기의 여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지속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을 위해 든든한 일자리 안전망을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청년 유출에 맞서 구직단계부터 채용, 장기제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진로탐색'을 필두로 '대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청년제직자 그린내일채움공제' 등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펼쳐 청년들의 민간 고용시장 진입부터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는다.

재취업과 이·전직 등 중장년을 위한 '리스타트 4050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안전망도 확충한다.

더 나은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친화 대표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일·생활 균형 등 건전한 고용노동 문화 확산을 위한 가족친화기업 선정제도 추진한다.

### ▲ 일자리사업 추진체계 고도화

대구시를 중심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고용 주체 간 네트워크를 고도화해 일자리 현안 공동 대응 등 일자리사업 추진체계를 견고히 다져 나간다.

청년 및 전문직 중심 취업 알선, 일자리 발굴 강화를 통한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구·군 일자리센터 등 유관기관 협업 활성화는 '원스톱일자리지원센터'가 앞장 서고, '대구일자리전환지원센터'는 중장년 중심의 위기 근로자, 재기 소상공인 대상, 이·전직 등 일자리전환 지원, 재직자 훈련을 통한 대체산업으로의 편입 지원하며, '대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



게 종합적인 원스톱 취업지원하고, '대학일자리지원센터'는 대학 내 종합 취업 서비스 제공 등 선별별 선택과 집중을 통해 기능을 고도화해 나간다.

대구 모든 일자리 정보를 한 곳에서 모바일로도 손쉽게 볼 수 있는 내 손안에 있는 모든 일자리 정보인 '대구일자리포털'도 지난 12월 정식 서비스에 나서 시민과 기업이 원하는 일자리를 적재적소에 이어주는 지역 대표 구인·구직 통합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구시와 구·군을 비롯한 모든 본청 정책이 일자리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며, 정책수혜자

인 시민 평가를 실시하여 일자리 사업의 시민 체감도를 상승시키는 한편, 자체 지역고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분석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상황을 정책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민선 8기 일자리종합대책'은 앞으로 4년간 대구시 일자리 정책이 나갈 길잡이로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에게 공시하고, 추진 효과 분석, 평가, 환류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 미래 50년을 책임지게 될 5대 미래 신산업 육성과 통합신공항 건설 등 대구 부흥을 위한 밑거름들이 하나둘 그려지고 있다"며, "앞으로 대구는 청년들과 미래 세대가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유망한 기업과 좋은 일자리들로 채워져 더욱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제 대구시는 탁월한 리더십을 지닌 홍준표 대구시장이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젊은 세대들에게 '꿈과 희망과 비전'을 통해 대구시를 보다 업그레이드 시켜 나간다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대구시'를 넘어, '세계속의 대구시(Daegu City in the World)'로 힘차게 뻗어 나갈 것으로 기대되기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준비한 「미래 50년 대구 먹거리를 책임질 5대 신산업 일자리 발굴 등 4대 전략」이 자리매김돼,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이 내건 '강력한 일자리정책 드라이브'가 확실히 그 빛을 발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려 본다.

윤근수기자

미래 50년 대구 먹거리를 책임질 5대 신산업 일자리 발굴 등 4대 전략 마련

기업을 자유를, 시민의 활력이 넘치는 일자리 혁신도시 대고

2026년까지 '다양한' 70%, '청년' 45%에 45%, '청년' 117만명 대구 미래



**안성시, 대학과 지역 상생을 위한 꾸준한 발걸음**  
**안성시-지역대학 상생협력 추진과제 발표회 개최**



안성시는 지난 22일 안성맞춤아트홀 문화살롱에서 '안성시-지역대학 상생협력 추진과제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해 이원희 한경대 총장, 이형환 중앙대 부총장, 최용혁 동아방송에솔대 총장, 이상훈 두일공과대 단장, 송지영 한국폴리텍대 반도체융합캠퍼스 처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대학이 자체 추진한 지역 연계 사업 소개, 2022년 상생협력 과제 추진 실적, 2023년 신규 상생협력 과제를 발표하고, 상생협력의 방향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안성시는 올해 관내 5개 대학과 지역주민 교육역량 향상 및 중장년 행복캠퍼스 프로그램, 청년 취업·창업

업체적 지원, 안성맞춤 모동버스킹 등 다양한 분야의 과제 14건을 추진한 결과 6억3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종 13건의 과제를 완료했고, 2023년에는 14건의 과제에 5억5천여 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안성이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뤄지는 도시가 되려면 대학이라는 인연을 통해 안성에서 머무는 청년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도 중요하다"며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오늘 주신 좋은 의견을 모아 앞으로 상생협력 추진과제의 사업 진행 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 멋진 협력관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용인도시공사 공영주차장 음성인식 안심 비상벨 설치로 범죄안심주차장 조성**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시에서 위탁받은 타워형 주차장 6개소에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음성인식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음성인식 비상벨은 버튼을 누를 수 없는 상황의 범죄에 노출됐을 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구조요청어만으로도 비상상황임을 인식해 영상과 음성이 송출되는 제품으로, 공사는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에 응고, 당선돼 별도의 예산을 소요하지 않고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신제품을 설치했다"라며 "설치되지 않은 주차장에도 추가로 설치를 추진해 범죄 없는 도시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공사는 처인구 2개소(금학공영주차장, 중앙공영주차장), 기흥구 2개소(상갈공영주차장, 신갈공영주차장), 수지구 2개소(풍덕천1 공영주차장, 풍덕천2 공영주차장)에 비상벨을 설치했으며, 비상상황 시 24시간 운영하는 '용인시 공영주차장 통합관리센터'에 영상과 음성이 포함돼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찬용 사장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높이기 위해 혁신제품을 도입했다"며 "혁신제품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경기도, 미래먹거리 발굴해법 찾는 '경바시' 시즌1 마무리, 직원들 "정책제언에 깊이 공감, 시즌2도 적극참여하겠다"**

**도, 15~23일 기획경기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1 개최**

경기도가 미래먹거리 확보의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경기혁신포럼 '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시즌1이 23일 마무리됐다.

반도체, 기후변화, 바이오, 미래차 등 미래 신성장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부하고 정책에 반영하자는 김동영 경기도지사의 뜻에 따라 마련된 경바시는 지난 15일부터 23일까지 총 7년의 전문가 특강을 듣고 함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도는 조직개편안 시행과 맞물려 진행될 이번 경바시가 도지사직 전 직원들이 함께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면서 도의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해 고민하는 뜨거운 토론의 장이 됐다고 자평했다.

산업협회 부회장은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 육성 최적이어서 새로운 혁신의 진원지로 진화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이를 위해 "대기업과 수도권 특혜 등 반도체산업 지원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투자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인허가절차 간소화 등 글로벌 수준의 투자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경기도 미래차 부품산업의 현황과 과제에 주제로 특강을 한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내연기관 시스템에서 미래차를 지원하려고 하면 안 된다. 민간에 있는 분들을 활용해서 같이 가는 게 낫다"면서 "민과 관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하라는 얘기"라고 조언을 주기도 했다.

특히 반도체와 미래차 등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경기도에 대한 아낌없는 제안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화두를 던지기도 했다.

먼저 전 세계 기후중립 달성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는 비영리 민간싱크탱크 아고라 에네르기벤데(Agora EW)의 클라우디오 바치안티(Claudio Baccanti) 유럽연합 지속가능금융 프로젝트 매니저와 염광희 한국 프로젝트 매니저는 2050년 기후중립 목표에 맞춰 발표한 '유럽 그린딜'을 소개하며 이에 대한 대응을 경기도에 주문했다.

특히 염광희 매니저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제부도라든지 경제성 있는 풍력이 있다. 그리고 바이오메스나 폐기물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면서 생각의 전환을 당부했다.

'반도체산업 현황 및 정책 동향'에 대해 특강에 나선 이창한 한국반도체

리본게 고맙게 생각한다. 경바시가 각자 하고 있는 일과 도정을 몸에 익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즌2, 시즌3에서도 좋은 주제를 다뤄 민선8기 경기도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요한 과제들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혁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경바시에 참여한 경기도 직원들도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국내외 동향, 경기도의 현황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앞으로 진행될 시즌2에 대해서도 기대감을 보였다.

미래산업과의 한 주무관은 "미래차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업무에 매우 도움이 됐다"며 "급격한 변화가 있더라도 충분히 준비한다면 반드시 기회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 전환을 준비



하는 경기도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좋은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과학기술과의 주무관은 "강연자의 정책 제언에 대해 깊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다. 특히 바이오산업 분야와 관련해 탁상공론으로 빠지지 않도록 바이오기업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한다는 부분과 이전 계획을 담담히 듣지 않는 중장기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에 공감했다"며 "바이오산업과의 신설에 따라 2023년에 최우선적으로 실행해야 할 과제 발굴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 시즌2에도 적극 참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바시 시즌 1의 반응이 좋아 새해에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시즌2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혜영/기자

**경기도교육청, 2023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 위한 예산 768억 원 편성·추진**

**일반고, 종합고 42교 444억 원, 특성화고 19교 324억 원 등 관내 61개 고등학교 대상 총 768억 원 편성**

경기도교육청은 2023년 본예산 확정에 따라 61개 학교 대상으로 768억 원을 투입하는 2023년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한다.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사업은 학생 선택중심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과교실 기반의 공간 구성과 개방형 공용공간·홈베이스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에는 공간 재구조화(리모델링) 사업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지만, 2023년에는 중층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한다는 점에서 달라졌다.

이를 위해 지난 8월에 사전 신청을 받아 61개 고등학교를 선정했다. 해당 학교들은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절대공간 부족으로 이번

사업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사업은 내년 3월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주도하는 사용자 참여 설계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건축교육전문가, 건축사 등 56명의 공간기획가 인력풀을 통해 사용자 참여 설계 제안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최길남 미래학교기획과장은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전에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공간조성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청 및 학교 담당자 연수, 대상교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용인특례시, 신봉동 제80호근린공원 조성해 시민에 개방**

용인특례시는 수지구 신봉동 218-7번지 일원 제80호근린공원 조성을 완료해 시민들에게 개방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공원은 광고산 힐스테이트아파트와 인접한 공원으로, 시가 신봉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항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뒤 조합으로부터 조성 비용을 받아 공사를 시행했다.

광고산 일대의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하고 공사 품질을 높여려는 취지에서다.

공원 면적은 약 2만2829㎡로 물놀이 시설, 멀티코트, 운동시설, 야생 화원 등으로 조성됐다.

물놀이 시설 설치와 관련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 간 팽팽한 찬반 의견이 있었지만 시가 주민협의회를 구성해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끝에 워터 슬라이드, 워터 터널 등의 시설을 갖출 수 있었다. 물놀이 시설은 평상시에 놀이터로 사용하고 여름철에는 물놀이 시설로 활용한다.

멀티코트는 베드민턴이나 축구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조성됐고, 공원 곳곳에 앉아서 쉴 수 있는 파고라, 등지사 등을 비롯한 쉼터도 충분히 갖췄다.

시는 공원에 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 느티나무, 메타세퀘이어, 대왕참나무, 이팝나무 등의 다양한 수종 930그루를 심었다.

공원의 공용화장실은 커뮤니티 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고 쾌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 광고산 녹지를 충분히 활용해 인위적인 공원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며 산책로도 잘 조성돼 있다.

공원조성비용은 보상비를 비롯해 152억이 투입됐다.

이상일 시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물놀이 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뜻깊다"며 "제80호근린공원이 신봉동 주민들의 새로운 힐링 쉼터로, 도심 속 녹지 공간으로 큰 사랑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경기도의회, 26일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는 26일 청사 중회의실에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한경 도의회 입법정

책담당관, 강희중 경기도 감사총괄팀장,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지방자치학회 조승현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는 염중현 의장이 현행 독

도의회 중회의실1 착수보고회 개최... 연구내용 보고 등 진행

임제 감사기구의 실질적 한계를 지적하고, 경기도형 합의제 감사기구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감사위원회'란 법률·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와 도민, 공무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다.

감사기구의 장이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독립제 형태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경기도는 현재 자체적으로 감사관을 임명하고,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내부 통제 등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성과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도입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자치분권 강화 추세에 발맞춰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합의제형 감사시스템을 경기도에 도입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연구용역 수행 기간은 이달부터 2023년 3월까지로, 문헌조사를 통한 이론적 검토와 '10개 광역시도 감사위원회 제도 조사·분석', '경기도의회 및 집행부 감사부서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등 실행조사도 병행하여 진행된다.

구체적 연구내용은 ▲감사제도 평가에 대한 이론적 검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성과평가와 과제 ▲선진국의 자치단체 감사제도 사례분석 ▲경기도의 감사위원회 도입방안 마련과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조혜영/기자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고향사랑기부제, 소멸위험 지자체에 기부 활성화할 방안 고민해야”

## 수원시, ‘답례품선정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위촉장 수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고향사랑기부제 도입 취지는 지방의 소멸위험 지자체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원시가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다른 지자체 시민에게 기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소멸위험 지자체에 기부하도록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소멸위험 지자체에 많이 기부해야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한도가 연간 500만 원인데, 기부자들이 한 지자체에 500만 원을 기부하기보다는 10만 원을 50개 소멸위험 지자체에 기부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고향이 수원시인 분들뿐 아니라 수원을 사랑하는 다른 지역 시민들이 수원시에 기부할 수 있도록 수원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아닌 ‘수원사랑기부제’의 개념으로 접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이날 각계 전문가 7명을 답례품선정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

촉했다. 답례품선정위원회는 민간위원, 당연직 1명(수원시 자치분권과장), 수원시의회의 의원 1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고향사랑기부제’는 타지에 사는 사람이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기부받은 지자체는 기부액의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수원시민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 시민이 수원시에 기부할 수 있고, 수원시민은 수원시와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모든 기초·광역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온라인(고향사랑e음시스템), NH농협은행 접수창구에서 기부를 신청할 수 있다.

10만 원 이하 기부는 100%, 10만 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 상당(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만 기부할 수 있고, 1인 기부 한도는 연간 500만 원이다. 지자체는 기부금을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답례품선정회의는 위촉식 후 회의를 열고, 답례품목을 선정했다. 공급

업을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 성과로는 ▲평택시 자활근로 참여자의 증가율 향상(전년대비 70.8% 증가), 자활성공률 우수(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률 및 취창업률 S등급) ▲자살예방지원사업 우수(통장신규가입자 모집, 통장 유지율, 통장 홍보실적) ▲자활기금 및 자활기업 활성화 적극지원(자활센터의 이전 및 마스크 제조사업단 기계장비 지원, 자활기업의 적극 홍보) ▲자활사업 운영 우수사례로는 MCS(주) 평택지점과 연계한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진행, 공모사업을 통한 자활참여자의 취학 자녀를 위한 ‘온라인 학습기 노트북 지원’, 자활사업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광역 자활센터 ‘난방비지원사업’ 연계 등

# 평택시, 2022년도 자활분야 우수 지자체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

평택시는 2022년 자활분야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2022년 자활근로, 자살예방 지원사업 운영, 자활기금[기업] 활성화, 자활사업 운영, 평택시의 분야별 핵심적인 성과 및 노력의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로 전국 16개 기관 표창에 평택시가 포함됐다.

이번 표창은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여 근로빈곤층의 자립 여건 조성, 취·창업 등 역량 제고를 위한 지자체 특화사업 활성화 및 정책성과 창출을 인정받은 것으로 특히 지자체 특화사업으로 커뮤니티케어 사업단 내 신규 사업으로 무연고자 유품정리, 시·도 공유재산을 활용한 자활근로 사업장 신설, 주거취약 계층을 위한 평택형 LH매입임대주택 지원사



업체 평가를 위한 심사 기준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정된 답례품은 ▲수원페이(지역화폐) ▲관광서비스 이용 쿠폰 ▲수원호스텔 숙박권 ▲시 관광기념품(농행차 명함첩, 주석 소주잔, 능행도 미니병풍 등) 등 10종이다.

수원시는 내년 1월 초에 민간공급업체를 공모할 예정이다. 공모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18일까지다. ▲농·축산물 ▲가공식품 ▲시 캐릭터 상품 ▲피크닉세트 ▲원데이 클래스 ▲공예품 등 6개 분야의 참여회사

조혜영/기자

업체를 모집한다.

내년 1월 안에 제안서 평가, 공급업체와 협약 체결, 시스템 등록 등 일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급업체가 선정되면 2월부터 해당업체 제품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운영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는 품질 좋고, 수준 높은 수원시의 물품과 서비스 상품을 전국에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많은 업체가 답례품 공모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하남시, K-스타월드 조성사업 관련 용역비 문체부 예산(국비) 반영

하남시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에 K-스타월드 조성사업과 관련한 용역비 3억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국비)으로 최종 반영되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하남시가 국가정책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K-스타월드 한류영상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을 활용한 수도권 K-컬처 집적단지 조성 가능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된다.

이현재 시장은 용역비 확보를 위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규 간사, 이용호 문광위 간사,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및 예산실장, 국회 예결위 등 관련 부처를 수차례 찾아가니며 적극 건의해 이뤄낸 성과로 이현재 시장의 중앙부처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남시는 지난 11월 K-스타월드 하남’ 조성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여야 주요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한류영상문화복합단지의 필요성에 대해 공론화한 바 있고, 이현재 시장은 그동안 K-스타월드 사업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차관, 환경부 차관, 문광부 1차관 등을 만나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용역비(국비) 반영은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이현재 시장이 밟고 뛰어다닌 결과로, 규제 해소와 더불어 사업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현재 시장은 “K-스타월드는 K-POP 등 세계적인 한류문화 확산 추세에 맞춰 하남시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며 “이번 용역비 반영은 정부에서도 K-스타월드 조성사업의 수도권 및 하남의 입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결과인 만큼 이를 발판으로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당연한 과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스타월드 프로젝트는 민선8기 하남시 역점사업으로, K-POP 전용 공연장과 세계적인 영화촬영장, 테마파크(마블시티) 등 국제적 한류 문화단지 조성을 통해 3만명의 일자리를 창출, 연간 관광객 300만명, 2조 5천억원의 경제유발효과 등으로 국내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강호/기자



# 조규성 선수, 안양시청 깜짝 방문…최대호 시장과 면담

## FC안양 첫 프로 입단 인연 “너무 애정있는 팀”

카타르 월드컵에서 최고의 스타로 떠오른 조규성 선수가 안양시를 깜짝 방문했다.

안양시에 따르면, 조규성 선수는 26일 안양시청에 찾아와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과 면담했다. FC안양에 입단하며 프로선수 생활을 시작한 조 선수는 군 입대 직전에도 FC안양 홈경기를 관람할 정도로 FC안양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조규성 선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축구에 진심이었고, FC안양에서 시작해 이렇게 성장하게 돼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너무 애정 있는 팀”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구단에서 너무 잘 챙겨주셨고, 안양이라는 도시 자체도 너무 좋아한다”며 “응원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최대호 시장은 “끊임없는 단련을 통해 월드컵 최고의 공격수로 성장한 조 선수가 많은 시민들에게 가슴 벅찬 감동을 줬다”며 “진정 안양을 잊지 않고 찾아와 줘서 고맙다”고 격려했다.

최 시장은 또 “미래 언젠가는 조 선수가 제2의 조규성을 발굴, 육성하는



등 또 다른 모습으로 한국 축구를 발전시키며 FC안양과도 인연을 이어가면 참 좋겠다”며 “FC바르셀로나와 같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구단으로 운영하는 것이 꿈이자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규중 안양시 체육회장 등 체육 관계자도 참석해 조 선수를 환영하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16강 진출을 축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조 선수는 지난달 28일 ‘2022 카타르 월드컵’ H조 조별리그 2차전 가나전에서 두 골을 터트리며, 한국 선수 최초로 월드컵 본선 멀티골을 기록했다. 다른 경기에서도 몸싸움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16강 진출에 힘을 보탰다.

신우용/기자

FC안양 유스팀인 안양공고, 광주대를 거쳐 지난 2019년 우선지명으로 FC안양에 합류한 조 선수는 ‘9번’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활약하며 ‘K리그2 베스트11’에 선정된 바 있다. 그는 올해 FA컵 MVP, K리그1 베스트11, K리그1 득점왕을 기록하는 등 맹활약을 하고 있다.

# 연수구, ‘구민이 뽑은 2022년 10대 성과’ 선정

## 5일간 18개 주요사업 중 1인 5개씩 복수투표 3천400여명 참여 결과

연수구가 주민 온라인 투표를 거쳐 치매친화도시 조성과 승기천 관리권 일원화 등 올해 ‘연수구민이 뽑은 2022년 연수구를 빛낸 10대 성과’를 선정했다.

올해 지역에서 벌어진 18개 주요 사업성과를 선별해 이를 대상으로 온라인 참여자 1인이 5개 사업을 복수로 선택하는 과정을 거쳐 구민이 뽑은 10대 성과를 선별했다.

그 결과 올해 보건복지부 치매안심마을 우수사례 선정 등을 통해 치매걱정 없는 행복한 연수구의 시작을 알린 ▲치매관리 인프라 및 치매친화도시 구축이 1천157표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다.

이어 남동구와 연수구로 분리되어 있던 승기천 관리권을 일원화하는 협의를 시작한 ▲승기천 관리권 일원화 추진 물길따라 향기 가득한 힐링공간 조성은 1천137표로 2위에 이름을 올렸다.

3위에는 민간주도형 골목상가 축제 육성과 제1호 골목형 상점가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1천107표의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꼽았다.

또 재정의기 극복과 구민 약속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얻어 낸 ▲송도국제도서관·청소년수련관 시비 168억원 추가 확보가 1천53표를 얻으며 4위로 뒤를 이었다.

이와함께 안골마을, 함박마을을 비롯해 인천시 저층 주거지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된 비류마을, 연수1동 철동 행복마을 등 ▲지속 가능한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박차도 1천46표로 5위에 올랐다.

이 밖에도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추진한 ▲송도관리단 확대 이전, ‘송도시대 개막’과 인천에서 가장 많은 52곳을 운영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및 장난감 대여점 확충이 각각 944표와 943표로 나란히 6, 7위를 차지했다.

또 2026년 국제공인평가 인증을 목표로 명품 안전도시 브랜드화 구축을 위해 아수대 지원센터 등과 맺은 ▲안전도시 공인사업 업무지원 협약이 926표로 8위에 꼽혔다.

코로나19 이후 움츠렸던 구민들을 위한 ▲한마음광장 구민 여가문화공간 개방과 아들간 신도심과 원도심에 8만여명이 관람객이 찾아온 ▲능허대 문화축제 4년만에 성공 개최가 각각 925표와 897표로 9, 10위에 섰었다.

이번 온라인 투표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연수구청 공식블로그를 통해 진행됐고 투표기간인 5일간 구민 등 3천400여명이 참여해 복수 투표로 진행됐다.

‘연수구민이 뽑은 2022년 연수구를 빛낸 10대 성과’ 선정 결과는 투표 순위별로 구성소식지 연수한마당 1월호에 사진과 함께 게재됐다.

김준남/기자



### 울진군,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및 국립산지생태원 동시 유치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와 국립산지생태원이 울진군에 들어선다. 울진군과 경상북도가 2022년 3월 4일 울진군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를 극복하고 산불피해지역을 재건하기 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한 '울진산불 피해극복 산림대 전환 프로젝트'가 총사업비 760억원 규모의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와 국립산지생태원을 울진군에 동시에 유치하는 성과를 내었다.

'울진산불 피해극복 산림대 전환 프로젝트'는 총사업비 1조 5천억원 규모로 울진군에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 국립산지생태원, 국가동서트레일센터, 산림레포츠지구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지난 5월 8일 윤석열 대통령령의 지역공약으로 대통령직 인수위 지역균형발전과제 대국민보고에서 경북정책과제에 선정됐으며, 이후 울진군과 경상북도는 산림청에 사업을 건의하고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예산을 요청하여 2023년 사업예산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에 유치 확정된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총사업비 360억원 규모로 산림청에서 조성하게 되며 2023년 설계용역예산 3억원이 확보됐다. 국립동해안산불방지센터가 조성되면 지구적 기후변화에 따라 더



욱 번지고 규모도 커진다. 이번 평가는 경북도가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 72개 지구(667억원)에 대해 사업 추진실적, 민간자본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국·도비 집행실적, 시·군비 투자실적 등 총 6개 지표를 종합평가했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고령군은 많은 민간자본을 투자받고 지역자리를 창출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 6월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다산면 청년 복합 귀농타운 조성사업'은 청년농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을 통해 농촌지역 청년층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았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영주시의

전문화/기자

## 경북도, 올해 지역개발사업 추진 실적 평가

- 최우수기관 고령군, 우수기관 영주시·성주군 선정 -  
- 차별화된 사업발굴, 민간자본 유치 통한 지역개발사업 효과 극대화 -

경상북도는 지난 26일 민간자본 투자유치 실적, 기반시설사업 추진 등 지역개발사업 업무 전반에 걸쳐 실시한 '2022년도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에 고령군, 우수기관에 영주시·성주군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우수기관에는 기관시상과 함께 포상금이 지급되며, 지역개발사업 업무추진에 유공이 많은 공무원 7명에 대해서도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번 평가는 경북도가 낙후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개발사업 72개 지구(667억원)에 대해 사업 추진실적, 민간자본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국·도비 집행실적, 시·군비 투자실적 등 총 6개 지표를 종합평가했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고령군은 많은 민간자본을 투자받고 지역자리를 창출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지난 6월 국토부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된 '다산면 청년 복합 귀농타운 조성사업'은 청년농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을 통해 농촌지역 청년층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았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영주시의



'500년 풍기인삼 문화팝업공간 조성 사업'은 다목적 문화 팝업공간 조성 및 인삼엑스포 개최를 통해 풍기인삼 산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 사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성주군은 국도비지원 기반시설 집행실적 및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실적 부문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별은 품은 행복마을 꿈벌터 조

성사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한 주거안정과 생활인프라 구축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2년 지역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결과 발굴된 우수사례는 시군에 전파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 향후 지역개발사업 추진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박동업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역개발사업이 낙후지역 성장 동력의 원천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차별화된 사업전략과 투자유치에 적합한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관계기관의 행정협력에 집중해야 한다"며, "차별화된 사업 발굴 및 자본 유치가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임을 명심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 대구시, 올해 도시첨단산단 '스마트'하고 '그린'하게 변신

올해 도첨산단,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으로 사업추진 본격화

첨단지식산업 중심의 미래형 산업단지로 조성되는 올해 도시첨단산단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탄소중립을 도모하는 사람 중심의 쾌적한 산업단지로 거듭난다.

'산업입지법' 개정 및 관련 지침 수립 등의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지난 '21년 6월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올해 도시첨단산단이 새만금 국가산단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국가시범산단으로 정식 지정됐다.

후보지 선정 직후, 대구시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권자인 국토부, 사업시행자(LH, 대구도시개발공사) 등과 지속 교류·협의 후 '스마트그린산단단지 기본계획(안)'을 수립해 국토부에 지정 신청하는 등 올해 도시첨단산단의 스마트그린산단으로의 변모를 위해 힘써왔다.

기존 노후산단(20년 이상)에 대해 기업의 제조·생산 혁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는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사업과는 별개로 이번의 국가시범산단

조성사업은 신규 조성단계의 산업단지 대상에 스마트그린 요소를 종합 구현해 온실가스 25% 감축 달성을 목표로 하며, 이 경우 앞서 언급한 노후산단 전환사업 대비 혁신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하다.

스마트 교통·안전 분야의 지능형 기반시설을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 태양광발전)와 에너지저장장치(BESS) 등을 적극 도입한 에너지자립화사업 추진으로 에너지효율 제고·탄소 배출 25% 이상 감축 목표를 실현할 계획이며, 저영향개발(LID) 기법과 클린로드시스템, 스마트가든 등 다양한 녹색기술을 결합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산업단지를 제시한다.

아울러 해당 산업단지가 지닌 도심권 입지 특성과 미래형 첨단산단으로 조성됨을 감안해, 중앙 공원 상부에 랜드마크 개념의 복합문화공간(스마트 커뮤니티스테이션)을 조성해 근로자와 시민이 공유하는 여가·문화·교류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올



해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은 탄소중립 및 산단 생산성 증대 효과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산단 개발방식에서 탈피해 기업혁신과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산단 개발방식을 도입했다

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향후 올해도 시범산단단이 스마트그린산단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통영시, 2022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8억원 확보

전년대비 20억원 증액



통영시는 2022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8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전년도 대비 20억원이 증가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 특별교부세 3개 분야에 상반기 10.7억원, 하반기 57.4억원을 확보함으로써 특히 하반기에 뛰어난 성과를 이루었다.

선정된 사업으로는 현안 5건 22억원, 재난안전 11건 39.4억원, 시책수요 9건 6.7억원 등 총 25건 68억원이다.

특히 하반기 1, 2차에 걸쳐 현안 및 재난안전사업으로 ▲제62회 경상남도민체육대회 개·보수사업 5억원 ▲통영대교 시설물 보수공사 5억원 ▲통영 수소소통복합기지 구축사업 5억원 ▲안전취약계층 가구별 재난방송시스템구축 5억원 ▲버스승강장 운영의자 설치사업 2억원 ▲통영시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성사업 5억원 ▲통영실내수영장 안전 보강공사 11.5억원 ▲전통시장 폭염저감을 위한 미세안개분무시스템 설치사업 4억원 등 총 47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지역현안사업 및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각종

재난안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또한 지방규제혁신TF 우수지자체 지원 3억원 등 시책수요 인센티브에서도 9건 6.7억원을 받았다. 이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각종 시책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결과이다.

천영기 시장은 "이번 성과는 통영시와 지역구 정점식 국회의원과 의전력적 대응이 만들어 낸 성과"라며 "민선 8기 현안사업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앞으로도 국회 및 중앙부처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 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부세 등 국·도비 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준/기자

## '포항시 기업 세무 119'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 성과 인정받아

포항시 납세자보호관, '기업 세무 119'로 행안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 및 표창 수상

포항시는 지난 19일 행안부 발표대회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납세자 보호 업무 '포항시 기업 세무 119'로 자치단체 우수상을 수상해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받았으며, 발표자로 나선 예산법무과 송현진 주무관이 개인 표창을 수여 받았다.

행안부 발표대회는 올해 자치단체별 납세자 권익 보호 우수사례를 발표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더욱 증진하고 타 자치단체에 우수 제도를 전파하기 위해 개최된 것으로 전국 본선에 선발된 14개 자치단체가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포항시는 경북



예선을 최우수로 통과해 이번 행안부 본선에서도 성과를 달성했다.

포항시는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 기업의 대내외 경쟁 여건이 좋지 않은 가운데 과거 수동적인 납세

행정을 탈피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 시책으로 '포항시 기업 세무 119'를 추진하면서 '기업이 의도치 않은 지방세 추징'을 예방하고 기업에 낮은 지

방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260여 명의 기업체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업을 위한 지방세 취약 사항 설명회'를 기업별로 52회 개최했으며, 설명회 과정에서 확인된 지방세 착오 납부 사항 및 지방세 감면 미적용 사항을 12건 발굴해 5,700만 원을 환급 처분했다. 또한, 지방세 관련 각종 고충 상담 및 컨설팅을 수시로 진행하고, 일반 시민들을 위한 '마을 세무사' 활동 지원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 기업들이 지방세 관련 정보 부족으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역울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항시에 신규 투자한 기업과 새로 창업한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업 하기 좋은 포항'을 만드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태용/기자

# 영양중앙교회, “작은 손길 큰 행복” 사랑의 나눔

### 불우이웃돕기성금 500만원 전달

영양중앙교회는 12월 27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희망을 나누고자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하며 '희망2023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영양중앙교회에서는 작년 영양사랑 프로젝트 “With Jesus! Love 영양!” 사랑 나눔 행사에 이어 2022년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작은 손길 큰 행복” 사랑의 나눔 행사를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500만원의 성금을 모아 마련했다.

또한 영양중앙교회는 영양군인재육성 장학금과 다문화가정 신입생 책가방 나눔에도 매년 동참하고 있다.

전달식에 참석한 영양중앙교회 강동석 담임목사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은 한파보다 더 무섭다. 영양지역을 섬기는 교회로서 작



은 믿음에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위해 작은 정성을 모았다. 영양중앙교회의 작은 정성이 이웃에게 큰 행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항상 교회가 영양군민과 함께 하며 기도하고 돕겠다”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불경기에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이어오고 계신 영양중앙교회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읍면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등 꼭 소외되고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근수기자

# 봉화군서 첫 4-H인의 밤 행사 열려

### 4-H 선후배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

봉화군에서 최근 4-H인의 밤 행사가 처음 열렸다.

봉화군 4-H 본부는 지난 21일 봉화한약우프라자 연회장에서 '제1회 봉화군 4-H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4-H회원 및 내빈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화군4-H의 역사를 재정립하고 재도약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 모범을 보인 4-H회원에 대한 시상식이 열려 김우섭 4-H연합회 사무국장이 봉화군수표창을 받았으며, 시상식 외에도 봉화군4-H 발전을 위한 강의, 봉화군4-H역사 동영상 시청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처음 개최하는 봉화군 4-H인의 밤 행사를 통해 봉화군 농업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4-H선후배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마련돼 회원들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양운길 봉화군4-H본부 회장은 “이번에 처음 개최하는 행사를 통해 4-H가 재도약해 회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4-H이념을 적극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 청송군, 전국 최초로 버스이용 전면 무료

### 군민, 관광객 등 누구나 제한 없이 내년부터 무료이용 가능

청송군이 내년 1월부터 군민의 대중교통 편의를 증진시키는 교통복지 정책으로 '농어촌버스 무료 운행'을 시작한다.

청송군은 지난 12월 14일 청송군의회 본회의에서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하여 2023년 1월부터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무료이용은 연령이나 소득수준, 주소지 등 자격 조건에 상관없이 청송버스를 이용하는 탑승객 누구나 가능하며, 버스, 택시 외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대도시권에 비해 대중교통 이용에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던 청송군민의 불편을 상당수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타 지역에서 시행중인 교통약자 등 특정층에 한정된 교통복지



사업 대상은, 전국 최초로 경제활동 인구가 성장년층과 관광객까지 전면 확대했다는 점에서 인구 유출 및 진출을 막고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청송군의 의지가 돋보인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으로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예천군, 올해 '기관 수상' 역대 최다 상복 터져

### 민관 협력 군정 빛났다! 49개 기관표창 수상

예천군이 올 한해 적극적으로 군정을 추진한 결과 49개 기관 표창(12월 26일 현재)을 받으며 최근 5년간 역대 최다 수상 실적을 올렸다.

수상 현황은 중앙부처 14건, 경상북도 33건, 한국공공자치연구원 등 외부기관 2건을 수상했으며 수상 분야도 특정 분야에 치우침 없이 분야별 골고루 우수실적을 인정받아 전반적으로 어느 해보다 군정 역량이 빛났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분야별 수상실적은 △민·관협력 범군민운동으로 추진해 온 글린예천만들기 운동 전국 '환경대상' △농정평가 우수(12년 연속 수상)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특교제 1억 원) △제안제도 운영평가 우수(12년 연속 수상) △청렴 및 감사활동 최우수기관 선정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됐다.

뿐만 아니라 △경북 에너지 대상 △경북 환경대상 대상 △식품공중위생 종합평가 대상 △농업기술혁신 경진대회 대상 △가축방역시책평가 대상 △평생교육 추진 최우수 △도민안전 시책 평가 최우수 △경상북도 일자리 창출평가 우수 △의약관리사업 평가 최우수 △인구정책 평가 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이 같은 성과는 모든 공직자가 정부와 상급 기관의 정책에 발맞춘 행정을 적극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급변하는 미래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군민 편의를 위한 사업과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올해도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전 공직자가 도전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 결과 역대 최다 수상 실적을 거두며 예천군을 빛냈다.”며 “내년에도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근수기자

# 경북교육청,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최우수 기관 선정!

### 교육감 훈련 참여, 교육부 불시 기능점검 등 종합 최우수

경북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교육부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실시한 전국 규모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 국립국제교육원 등 교육부 소속기관, 서울농학교(시범기관) 등 유관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요인으로 전 기관(학교)에서 훈련을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분담은 최소화되 핵심 내용을 누락 없이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을 꼽았다.

또한 교육감이 현장훈련과 토론 훈련을 직접 주재해 훈련의 관심도를 증대시키고, 실제 재난상황에서 각 부서의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한 것과 재해취약기관인 유치원을 비롯해 교육지원청과 전 기관 및 학교가 훈련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을 선정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경상북도의 안전한국훈련에 경북교육청이 적극 동참해 훈련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실제 재난 발생



시 지자체와의 공동 대응력 강화에 이번 훈련이 기반이 된 점을 인정받았다.

임종식 교육감은 “기후변화로 재난이 대형화되고 잦아지고 있는 상황

윤근수기자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남부도서관, 미디어창작실 개설 및 미디어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남부도서관은 2023년 1월 2일에 미디어창작실을 개설하고, 12월 27일부터 2023년 1월 13일까지 미디어콘텐츠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남부도서관 미디어창작실은 온라인 지식문화 콘텐츠 소비 증가에 따라 학생과 지역주민들의 미디어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지식문화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및 실감형 체험관 조성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5,000만원(국비 2,500만원, 지방비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남부도서관 2층에 조성됐다.

미디어창작실은 방송시설, PC, 카메라, 조명 등 영상 촬영 장비 등을 구비한 ▲스튜디오와 ▲미디어콘텐츠 교육 및 유튜브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디어콘텐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유튜브 영상 촬영 및 체험, 스튜디오 시설 및 장비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미디어 콘텐츠 교육은 연중 운영될 예정이며, 2023년 1월 27일부터 2월 18일까지 초등학생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유튜브 영상제작 기초 프로그램 2개 과정이 운영되는데, 영상 제작

교육을 통해 직접 영상콘텐츠를 촬영 및 편집하고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3~5학년 대상 ▲'오늘부터 나도 키즈 크리에이터'와 성인 대상 ▲'영상제작 첫걸음' 2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배근영 남부도서관 관장은 “지역주민들이 미디어창작실을 통해 미디어 콘텐츠를 생산하고 창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서비스 환경을 제공해 복합문화 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부산시, 공기업, 민간 대기 등 8개 기관이 함께 협약 체결 '우리 동네 ESG센터 구축'위해 민·관이 힘 모은다!

### 어르신들을 위한 친환경 일자리 창출, 어르신들의 어린이 대상 친환경 교육 실시로 세대 융합 추구

부산시는 오늘(28일) 오후 4시, 금정구 소재 우리 동네 ESG센터에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공기업, 민간기업 7개 사와 함께 개소식 및 업무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김미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등 각 기관 내빈 및 부산시민 100여 명이 참석한다.

또한 이날 개소식과 함께 '우리 동네 ESG센터'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남부발전(주), 부산도시공사, 이마트, 롯데케미칼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의 기관별 역할을 보면 ▲부산시는 사업 홍보 및 인건비 지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사업 총괄 기획 및 사업비(인건비) 지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수직정원 설치 및 환경도슨트 일자리 창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재활용 안전손잡이 설치 사업, ▲한국남부발전(주)은 취약계층 가구 내 LED면조명 설치사업, ▲부산도시공사는 영구임대상가 무상지원, ▲이마트는 어린이도서관 구축, ▲롯데케미칼은 기술지원 등이 있다.

'우리 동네 ESG 센터'는 지역에서 수거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다시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자원 순환 센터는 재활용 작업장뿐만 아니라 어린이도서관, 환경 교육 체험 등의 공간도 운영하여 지역의 탄소 중립 거점 장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390개 일자리가 창출됐다"며, "향후 노인일자리사업이 소득 보전 등 복지 기능을 넘어 환경 등 사회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모델로 발전하도록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동네 ESG센터를 통해 지역 내 환경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종진/기자

# 2023 안동윈터아트페스티벌 참가 예술단체 모집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는 지역 공연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진행하는 '2023 안동윈터아트페스티벌(AWAF)'사업에 참여할 지역 예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2023 안동윈터아트페스티벌AWAF'은 지역의 자생적 활동력을 가진 민간 예술단체들에게 전문 공연장, 갤러리 등의 시설활용 및 실비를 제공하여 전문 예술 활동유도와 단체의 역량강화로 레퍼토리 개발을 통해 수준 있는 예술 활동을 실현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다.



만 원에서 최고 900만 원, 전시 부분 최저 100만 원에서 최고 4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여 2023년 2월~3월 안동문화예술의전당 공연장 및 갤러리에서 단체들의 특색있는 레퍼토리 역량을 표현할 예정이다.

'2023 안동윈터아트페스티벌AWAF'은 지역 예술단체의 지속적인 예술 활동 장려와 생활문화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시민들에게는 추운 겨울에 다양한 공연 및 전시를 볼 수 있는



기회제공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윤근수/기자

특히 센터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작업 및 환경 교육 등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총 390명의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ESG는 지역주민과 참여 노인들이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Eco Senior Group' (에코 시니어 그룹)이라는 뜻과 함께 최근 강조되고 있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모 대상은 안동시에 주소지를 두고 2년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공연 및 전시 민간예술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1차 서류심사, 2차 공연 및 전시 전문 전형위원으로 구성된 심층 PT심사를 통해 진행된다.

특히 2023년 단체 선정 심사에서는 안동시 거주 예술인들이 70% 이상으로 구성된 예술단체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지역 예술가들의 참여 기회제공 및 예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사업 실효성 및 다면평가로 최종 선정된 공연부분 단체는 최저 250

다양한 공연 및 전시를 볼 수 있는

# 의성군,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의성군은 환경부 주관 일반수도사업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기관 (A급, 매우 우수)에 선정됐다.

환경부가 발표한 평가에 따르면, 의성군은 2022년 우수기관(A등급)과 전국 4위(경북 1위)를 차지해 포상금 500만원을 받게 됐다.

올해 평가는 일반수도사업자로 등

록된 전국 168개 기관을 대상으로 3개 분야 29개 항목에 대한 심층 평가로 진행됐다.

의성군은 탄소중립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설치, 응용물 향상을 위한 노력, 운영비 절감을 위한 상수도 공급체계 개편 등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환경부의 이번 평가에서 2년 연속 수상으로 의성군의 수도서비스 능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라며 "앞으로도 의성군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공급으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달서구청소년문화의집 겨울 마을축제 개최, 성료

대구 달서구는 지난 24일 성탄절을 맞아 달서구청소년문화의집 주관으로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겨울 마을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겨울 마을축제는 24일 청소년문화의집 3~4층에서 지역주민 및 청소년 400여명이 참여했다. 축제는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려 소통하고 즐기며 성탄절 분위기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마을축제의 개막을 연 청소년 공연은 대구지역에서 자신의 꿈을 향해 무한 도전하고 있는 댄스팀 제이원도미네이션, 인디밴드 Hon'z, 랩퍼 GVNU를 초대해 축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신나는 무대를 보여줬다.

특히 체험부스 운영은 달서구청 소년수련관이 함께 참여해 송사탕 만들기, 보석식자수 키링 만들기, 양말목 공예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진행했으며, 난타체험, 타로체험, 재활용 환경 놀이감 등 청소년의 흥미를 끄는 체험존도 운영해 방문한 청소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달서구청소년문화의집은 달

서선사관과 복합시설로 지난 11월 26일 개소해 운영 중이며,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활동, 정보교류,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 청소년 활동프로그램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양강좌도 운영하고 있다.

강창원 달서구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지난 11월 개소한 달서구청소년문화의집이 이번 축제를 통해 청소년과 지역주민에게 더욱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의 휴식, 배움,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마을축제를 통해 청소년문화의집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이 편하게 찾아와 다양한 문화 활동과 정보교류, 소통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고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 수성구청, 매호천길 경관화훼단지 '생각을 담은 정원' 준공

대구 수성구는 '생각을 담은 길 2코스'인 매호천길에 야자수, 바나나 등 다양한 열대식물과 형형색색의 초화류를 만날 수 있는 '생각을 담은 정원'을 조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생각을 담은 정원'은 4계절 다양한 식물과의 교감을 통해 현대인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활력을 줄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인접한 매호천, 남천, 금호강 둔치산책로 이용객에게 보다 따뜻한 힐링공간이 되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조성된 시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국가철도공단과 협조해 국유지를 적극 활용했다.

열대온실 내부에는 야자수를 비롯해 파파야, 커피나무, 삼척바나나, 대왕몬스테라, 부겐베리아 등 중대형 수목(70여종 150주) 위주의 다양한 열대식물이 식재되어 있다. 외부 경관단지는 알리움, 유럽사계장미, 팜파스그라스, 샤프란, 라벤더 등 형형색색의 초화류(50여종 3만여본)가 뿌리내리고 있다.

아울러 '생각을 담은 정원'은 싱그러운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식물이 수려 테마인 만큼 시간

사랑받는 정서적 공간이 될 것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자연을 벗 삼아 진정한 휴식과 재충전이 가능한 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광삼/기자

# 구미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지자체 선정



행정안전부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사례 심사 평가'는 낮은 신용점수로 인해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평가는 금융분야 교수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의 1차 서면심사(정량평가, 정성평가)후 2차 발표심사를 통해 금융지원 사업의 독창성, 효과성, 지자체 노력도, 연계 파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으며 최우수 지자체 4곳, 우수 지자체 9곳 총 13곳을 선정, 포상으로 총 3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구미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실시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청자격 중 거주지 조건을 삭제하여 구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은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으며, 또한 지난해

까지 대출 상환을 완료한 소상공인은 2년 동안 보증을 받지 못했다. 2022년부터는 상환을 완료하면 특례보증이 가능하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대상자를 확대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구미시는 이번에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지원 우수사례 심사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원 포상을 확보했으며, 12월 초 불가안정관리 추진실적에서 특별교부세 7천만원을 포상받는 데 이은 희소식을 전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시는 내년도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하여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을 주는 특례보증을 경복최대로 확대 지원 예정이며, 유관기관 및 지역금융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봉원/기자



# 전북도, 국가예산9조원시대개막!

### 전북도·정치권 원팀 막판 뒷심 발휘로 9조 1,595억원 확보

전북도가 사상 첫 국가예산 9조원 시대를 개막하며 전북경제의 도약과 민생안정, 전북 주도의 새로운 전북시대를 향한 확실한 동력을 확보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재정구조 변화와 역대 최대규모의 지출 재구조화, 도 국가예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SOC, 문화·관광, 산업·중기 분야 예산 축소 등 그 어느 해보다도 불리한 여건 속에서 이뤄낸 성과여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예산규모의 증가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 사업, 탄소·수소·소재부품·바이오 산업 등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사업, 친환경 모빌리티·조선·기계·농생명 등 기존 주력사업 경쟁력 강화사업 등 내실 있는 예산을 대거 확보하여 전라북도의 경제체질 강화와, 성장형 산업생태계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한 전북도는 전년도 도 예산 9조원 시대 진입에 이어 올해 국가예산이 9조원을 돌파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25일 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국가예산으로 전년대비 2,227억원이 증가한 9조 1,595억원을 확보해 국가예산 9조원 시대의 막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병도 의원, 정운천 의원, 김윤덕 의원, 김성주 의원, 신영대 의원, 김수홍 의원, 이원택 의원, 안호영 의원 등 국가예산 확보 과정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은 도내 국회의원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2023년 국가예산 확보과정에서 전북도는 ‘위기로부터의 일상회복과 민생안정’, ‘전북경제의 도약과 전북 주도의 새로운 시대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방점을 두고 분야별 주요 핵심사업 예산 반영에 주력했다.

전북도는 이를 토대로 △도민경제 부흥을 위한 전북경제 혁신 성장 산업생태계 조성 △농업의 가치를 높이는 농생명산업 미래경쟁력 제고,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체육·관광산업 인프라 확충 △미래 신산업·물류 중심지로 도약하는 새만금 구현 △도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더 안전한 환경, 더 충실한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전라북도는 분야별 내실 있는 신규사업 427건 4,618억원을 확보했다. 이들 신규사업은 시작년도 국비 확보액은 적지만 총 사업비 6조원 규모 사업의 시작으로 향후 4조 7,000억 원 규모의 국비 확보와 전북의 지속 성장·발전을 뒷받침할 든든한 기초가 될 전망이다.

특히 올해에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군산항 제2 준설토 투기장 건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등 그 동안 차근차근 준비해온 대규모 사업 3건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2028년까지 1조 6,201억원의 국비 투자 확보와 관련 기업 유치, 유관 산업 성장 등 연쇄적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전북경제 도약을 위한 기업유치 및 인재양성 기반 조성 예산도 확충됐다.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 조성’, ‘캠퍼스 혁신파크조성’, ‘농공단지 패키지 지원’ 등을 통해 기업유치 및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 집적화 공간 조성과 기존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으로 도의 산업 기반을 더 한층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됐다.

‘3단계 산학연 선도대학 육성’, ‘제약산업 미래인력 양성센터 구축’ 등 산업구조 전환에 대응한 전략 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도 더 충실히 준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 새만금 환경생태유지 2-1단계 조성, △ 새만금 글로벌 푸드허브 조성, △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신설 등은 마지막까지 정부설득이 어려웠던 부분이 불확실했으나 정치권·시군·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 국회단계를 넘어 증액·반영되어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전북도가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정책과 관련하여 각 분야별로 확보한 예산은 다음과 같다.

도민경제 부흥을 위한 산업·경제분야 예산은 총 8,465억원이 확보됐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179억원’, ‘탄소소재 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134억원’, ‘수소저장용기 시험인증 플랫폼 구축 50억원’, ‘조선해양설치 운송인프라 구축 42억원’, ‘초기창업 패키지 지원 76억원’ 등의 예산을 확보해 전북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성장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됐다.



농생명산업 분야에서는 1조 15,37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70억원’, ‘그린바이오 벤처캐피탈 조성 87억원’, ‘디지털 식품가공 생산시스템 플랫폼 구축 89억원’, ‘금강지구 영농편의 증진 180억원’ 등 전북 농업의 미래경쟁력제고와 농생명산업 수도로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산업에는 총 2,541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지역관광 거점도시 육성 88억원’,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건립 5억원’,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3억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65억원’, ‘K-Film 제작기반 및 영화산업 허브 구축 10억원’ 등 문화·체육·관광분야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핵심사업들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새만금 분야에는 글로벌 물류중심으로 도약을 위한 공항, 항만, 철도, 도로 등 교통·물류망 구축 예산과 ‘재생에너지 디지털 트윈 친환경교통실증연구기반 구축’,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해상풍력산업 지원센터 구축’ 등 미래 신산업의 중심지

로 성장하기 위한 예산 1조 874억원이 확보 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는 총 1조 2,39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요국도 건설·개량’,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하천정비’, ‘어항개발’ 등 지역 균형발전과 투자유치 여건 개선, 지역간 접근성 개선사업들이 활기를 띠게 됐다.

안전과 환경, 복지분야는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40억원’, ‘청소년 디딤센터 건립 17억원’, ‘도시 생태축 복원 26억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339억원’ 등 생활환경 개선과 선제적 재난 대응, 더욱 충실한 사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예산 등 총 4조 1,941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 도지사는 “올해 국가예산 확보과정은 난관의 연속이었지만, 정치권과 시군, 도는 오직 도민과 전북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뛰었다”며, “이번에 확보한 국가예산을 바탕으로 전북경제를 일으켜 세우고 도민의 삶을 따뜻하게 만드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 새로운 희망, 새로운 전북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 남원시, 지방하천정비 평가 '우수기관' 선정

남원시가 전라북도에서 실시한 '2022년 지방하천정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하천에 대한 제방, 호안, 하도정비와 하천공작물 관리, 하천 내 불법행위 단속 등 하천유지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남원시는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40개소, 소하천 310개소 등 법정하천 352개소의 크고 작은 하천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국가하천에 12억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 52억5천만 원의 예산과 재난관리기금 1억7천만 원 등 총 66억여 원을 투입해 재해가 우려되는 하천을 사전에 정비했고, 제방과 수문 등 하천시설물의 위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특히, 하천의 우수소통에 지장을 주는 잡목제거와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우수단면을 확보하는 하도준설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



이남출/기자

여 사전재해예방과 하천환경관리에 힘써 온 점과,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하천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내실 있는 하천 유지관리 업무추진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우수기관 선정으로 남원시의 뛰어난 하천 유지관리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면서 “내년에도 빈틈없는 사업 추진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천관리에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익산시 시민 안전 최우선 폭설·한파 선제 대응

### 비상 체제 유지 폭설 제설작업 실시시간 대응, 출퇴근길 안전사고 대비

익산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폭설과 한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실시간으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사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주민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강력한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 안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전년 대비 관련 민원이 감소했다.

올해 현재까지 수도 계량기 동파 민원은 7건으로 지난 2020년 신고 건수 605건, 지난해 49건보다 대폭 감소했다. 이는 시가 동파 예방을 위해 추진한 선제적 대응 덕분이다.

시는 지난 10월부터 안내문을 배부하고 SNS 등을 통해 홍보해 왔으며 수용가 요청 시 계량기 내부 보온재를 제공하는 등 빠른 대응으로 계량기 동파를 예방했다. 또한 지난 해 스마트미터사업의 일환으로 전체

계량기의 60%를 동파 예방에 유리한 견식 계량기(디지털 계량기)로 교체했다.

앞으로도 동파 예방을 위해 저층 아파트와 구도심 상가, 읍면지역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긴급 복구를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을 실시간으로 진행하며 출퇴근길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제설장비 15대, 비상근무 인원 55명을 투입해 주요 도로와 취약 구간인 모현대교와 평화육교 등 6곳을 대상으로 긴급 제설작업을 실시했다. 이어 전 직원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하며 이번도로나 인도에 대한 제설작업에 나서 이동하는 주민들의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적극 조치했다.

시는 대설주의보가 해제된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 해 결빙 구간이나 제설 취약구간에

대한 후속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위험지역 예찰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기상 상황에 따른 실시간 대응으로 큰 안전사고 없이 폭설과 한파에 대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추가 폭설 등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도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내 집 또는 내 상가 앞 눈치우기 등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이선수/기자



## 완주 대표 관광지 삼례문화예술촌 앞마당 환하게 밝아졌다

완주군 대표 관광지인 삼례문화예술촌의 앞마당이 환하게 밝아졌다. 10년 가까이 방치돼 예술촌의 이미지를 감아먹었던 수 십t 가량의 폐기물 등이 완전히 정리됐고, 대형 화물차 등의 밤샘 주차차 사라지는 등 그동안 눈살을 찌푸려온 어수선한 환경이 완전히 정비됐다.

26일 완주군에 따르면 삼례문화예술촌에서 현재의 삼례역사로 가는 방향의 삼례읍 후정리 일원에 방치됐던 75t 가량의 산더미 폐기물과 재활용품 등을 최근 말끔히 치웠다.

예술촌이 문을 연 지난 2013년을 전후로 적재됐던 폐기물과 재활용품은 완주군이 ‘삼례 삼색마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후정리의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매입하면서 대대적 정비의 물꼬가 트였다.

완주군은 지난 7월 토지매입 후 점유자와의 면담을 통해 올 10월말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11월 중순경에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발송한 후 75t의 폐기물을 견여내는 등 환경을 말끔히 정비했다.

그동안 삼례문화예술촌이 전북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했음에도 산더미 폐기물이 10년 가까이 방치되면서 방문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등 민원 제기가 많았다.

완주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쓰레

기과 폐기물 방지, 악취와 소음 등 각종 환경문제로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 선 안 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후정리 일원의 폐기물도 이런 차원에서 정비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은 또 삼례역사로 가는 길목의 비포장 부지에 대해서도 밤샘 주차 단속에 적극 나서는 등 환경정비에 나서 주민들과 방문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주차단속 부서에서 이달 초부터 ‘화물과 버스 등 사업용 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지역’이라는 플래카드를 걸고 5명의 인력이 자정 무렵 밤샘주차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주차도 사라지게 됐다.



김광수/기자

삼례읍의 한 주민은 “그동안 완주군이 문화도시라고 하면서 대표관광지 옆에 거대한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담장도 없이 방치해온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며 “폐기물 처리와 함께 불법 주차 문제도 해결되니 예술촌에 대한 자부심을 더 많이 갖게 된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은 “밤샘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 해당 부지는 삼례문화예술촌 방문객을 위한 주차장 부지”라며 “삼례문화예술촌 주변의 환경 정비를 토대로 예술촌이 완주를 넘어 전북의 대표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범기 전주시장 “폭설 대응 전반 확인하고, 도로보수·취약층 현장가 챙겨야”

### 우범기 전주시장, 26일 간부회의에서 장비와 인력 등 전반적인 제설 대응 체계 주문

우범기 전주시장의 최근 폭설 상황에서 수습수범한 봉사자 등 시민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면서 대응 과정에서 나온 미비점을 찾아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폭설·한파 등에 취약하지만 쉽사리 손이 닿지 않은 취약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을 주문했다.

우범기 시장은 26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폭설 대응에 힘써준 봉사자 등에 감사함을 전하고, 제설 과정에서 운영된 장비와 인력 등을 전반적인 상황을 반추해 미흡했던 점을 찾아 보완하라”고 제설 후속 조치에 대해 언급했다.

우 시장의 이날 발언은 폭설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점을 망라해 시의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라는 의미이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문제와 장비·인력 동원 체계, 효율적인 제설 차량 운영, 영하갈증 비축,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등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반추해서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폭설 이후 나올 수 있는 문제점도 꼼꼼히 되짚도록 했다.

우 시장은 제설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 작업을 마무리하고, 제설 과정에서 발생한 포트홀 등 도로 훼손 부분을 찾아 신속히 복구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우 시장은 폭설·한파 등에 취약한 독거노인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접 취약계층을 찾아 나서는 현장 행정의 필요성에 대

해서도 강조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제설 작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상황을 잘 살펴 보수해야 할 부분은 신속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폭설·한파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도 직접 찾아가 챙기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에는 지난 22일 오전 6시부터 24일 새벽 사이에 15.6cm 눈이 쏟아졌다.

김승일/기자

### 구례군, 드림스타트‘산타구례’행복나누기 프로그램 운영

#### 드림스타트 아동 135명 따뜻한 온정 크리스마스 케이크 전달받아



전남 구례군은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산타구례~ 행복나누기' 프로그램으로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산타구례~ 행복나누기' 프로그램은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산타복을 입은 아동통합사례관리사가 드림스타트 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연말을 가족과 함께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올해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아동 135명에게 크리스마스 케이크

를 전달했다.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일부 후원을 받아 자연드림 우리 밀 케이크를 구매하여 대상 아동에게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아이들에게는 건강을 선물했다. 김순호 군수는 "작년에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과 가족들 반응이 너무 좋아 이번에도 소소한 기쁨과 행복을 주고자 추진하게 됐다"라며 "이를 통해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나눔의 온정을 전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 광주광역시, 색깔 있는 문화공간으로 '도시활력' 더한다

광주광역시는 광주만의 색깔이 담긴 독특한 도시문화공간 조성으로 시민 삶의 재미와 활력을 불어넣고 상징이 현실이 되는 '꿀잼도시' 광주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상무소각장직면신 등 문화예술 시설의 다양성 확보, 역사문화유산 시설의 복원·활용, 고대-근대-현대-미래를 연결하는 도시문화공간 등을 구축하고 있다. 광주만의 독특한 도시문화공간 조성인 3월에 개관한 광주미디어아트 플랫폼(GMAP)은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광주만의 빛을 만들어내고 있다. 예술과 과학기술이 만나 작품을 만드는 미디어아트에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 새로운 상상력과 창의력을 더해 국내외 관광객의 명소로 자리잡고 있다. 동명동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한 문화관광객 접공간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환경정비(동계천로·장동로·동명로를 마무리했다. 특히 동명동 앵커시설로 국내외 여행객들의 접근과 정보, 힐링의 공간으로 지난 7월 개관한 '여행자의 집(ZippER)'은 월 평균 4000여명이 상이 다녀가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시각 장애인들의 정보접근성 확장 및 문화예술 공유 증진을 위해 건립한 시립점자도서관은 2023년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도서관과 비시각장애인을 위한 일반도서관이 함께 조성되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4차산업 시대를 선도하고 미래지향적 문화콘텐츠 기반 조성을 위한 임동디지털창작소도 12월 준공 후 2023년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다. 디지털 기술 활용 창작 및 제작을 통한 문화예술 확산사업으로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교육 및 업무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문화예술 시설의 다양성 확대광주시는 시민의 문화적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시설 확충과 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다양한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전시관 노후에 따른 전시작품 훼손 등을 방지하고, 문화중심도시에 걸맞은 품격 높은 시설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건립사업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상반기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비엔날레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상무복합커뮤니티 타운 조성 관련 1단계 사업인 광주 대표도서관건립은 지난 11월 착공식을 하고 오는 2024년 준공이 목표다. 2단계 사업인 상무소각장 문화재생 사업\*\*은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해 2025년 공사완료로 목표로 추진 중이다. 광주문학관은 2023년 상반기 문을 연다. 지역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학 브랜드화로 예상 광주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문학인들의 숙원사업이었다. 광주시는 이를 통해 문학 활성화를 위한 창작기반 구축, 문화향유 환경 조성, 생활에서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시민문학 프로그램 개발 등에 나설 계획이다. 역사문화유산 시설 구축·활용과거의 역사를 현재의 문화유산으로 가치를 확산하는 복원·활용사업으로 역사문화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새롭게 재조명하고 있다. 지난 8일 개관한 신창동 마한유적체험관은 고대 마한을 대표하는 복합농경유적 신창동 유적에 마한인들의 생활과 생활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체험관은 2000여 년 전 지역의 고대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은 시민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전라도 천년을 기념하기 위해 건축 중인 회경루 중건 사업은 목공사를 마치고 지난 6월 상량식을 개최하는 등 공정을 85%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절개지 석축공사와 관리사무소를 건립 중이다. 2023년 5월 개관이 목표다. 또한 국가사적인 충효동 분청사기가마터와 전시관은 첨단 실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분청사기 도예창작소로 재탄생한다. 현재 설계용역 진행 중이며 2023년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문화예술을 통한 치유센터, 아시아아트프라자, 사적공헌상설공연장, 정율성 역사공원, 수안 복합커뮤니티센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통문화 플랫폼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두원 문화기반조성국장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 고대-근대-현대-미래를 연결하는 도시문화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과 재미 넘치는 도시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병수/기자

### 전남도, 내년 국비예산 8조6천525억 사상 최다

#### 신규 100건 1천488억 반영돼 미래성장동력 확보

전라남도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정부예산에 8조 6천525억 원이 반영돼 2년 연속 국비 8조 원 넘게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8조 3천914억 원)보다 2천611억 원(증3.1%)이 늘어난 규모다. 중앙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난 9월 정부예산안(8조 2천30억)보다 4천49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2023년 예산의 최대 성과는 총사업비 4조 7천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예산 가운데 총 100건 1천488억 원을 반영한 것이다. 향후 전남을 이끌 미래 성장 동력 사업을 다수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주요 핵심 신규 사업은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의 흐름에 맞춰 선도적 기반을 마련할 그린수소 에너지 설조성(여수·신안)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나주) ▲첨단 바이오 의료 산업 육성의 초석이 될 국립 심뇌혈관 연구소 설립(장성) ▲뉴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우주 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고흥) 등이다. 또 ▲도민들의 오랜 대형 숙원사업으로 문화·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3개 선도사업(해남 호반공원장, 신안 추포도 음식 테마파크, 광양·곡성·구례 위케이션 조성)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미래 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센터(해남)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완도) ▲해양자원보전의 핵심이 될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신안)도 반영됐다.

분야별로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편성되는 일과 차세대 에너지 산업, 미래 첨단 전략산업, 문화·관광 및 농림·해양 분야 등에 골고루 반영

된 산업별로 균형있게 성장할 발판을 마련했다. 차세대 에너지산업 분야의 경우 ▲여수·광양산단 기업의 수소에너지 사용 전환을 위한 여수·광양 수소공급 공용인프라 구축 타당성 조사 용역 3억 원 ▲그린수소 에너지 점 타당성 연구용역 2억 원(여수·신안)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 3억 5천만 원(나주) 등이 반영돼 전남이 향후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발전할 계기가 마련됐다. 미래 첨단 전략사업 분야는 ▲국립 심뇌혈관연구소 설립(25억 원/장성)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 기본계획 용역 5억 원(고흥) ▲조선·해양 구조물 스마트 운송관리 플랫폼 구축 32억 원(영암) ▲전기차 전주기 탄소중립 환경관리체계 구축 10억 원(나주) ▲미생물실증지원센터 백신 특화 공정인력 양성사업 21억 원(화순) 등이 반영돼 글로벌 핵심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문화·관광 분야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3개 선도사업으로 호반 플로팅 공원장 조성 24억 원(해남), 추포도 음식 테마파크 조성 12억 원(신안), 위케이션 조성 19억 원(광양·곡성·구례) ▲서남해안 명품경관 육성사업 3억 원(무안) ▲국립공립 월출산 생태탐방원 조성 사업 1억 2천만 원(영암·강진 공모) ▲나주읍성 관아와 향교 복원·정비 사업 22억 원 ▲국립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 및 역사문화권 종합 정비 사업 17억 원 ▲가고 싶은 섬 조성 사업 10억 원 등이 반영돼 전남의 관광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해양 분야는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 21억 원(해남) ▲국립 난대수목원 조성 6억 원(완도) ▲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건립 20억 원(신안) ▲어선건조 지원센터 구축 5억 원(고흥) ▲국제 (유기)농식품 수출 플랫폼 구축 타당성조사 용역 2억 원(광양·무안) ▲파쇄체소 연구소 구축 5억 6천만 원(무안) ▲농산업 빅데이터 센터 2억 원(나주) 등이 반영돼 미래 농수산업을 선도하게 됐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사전 기획조사 3억 원 ▲여수~동순천 IC간 도로 접근성 개선방안 연구 3억 원 ▲광양항~울진항 연결도로 개설 타당성조사 용역 3억 원(광양·여수) ▲담양~고서~장평 국지도 60호선 확장 2억 원 ▲호남 고속철도 2단계 3천46억 원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 1천780억 원 ▲여수 화대~백야 국도 77호선 연결도로 671억 원 ▲신안 압해~해남 화원 국도 77호선 연결도로 708억 원 등이 반영돼 내년 사업 수행 및 완공 일정에 맞게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 분야는 ▲전남 국립 호국원 조성 2억 원 ▲국가 노후화확산단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10억 원 ▲전남

512호 대체 친환경 병원선 건 2억 원 등이 반영돼 살기 좋은 전남 건설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김영록 지사는 "새정부 들어 해상 풍력사업을 비롯한 전남의 현안들에 대해 도민들의 걱정이 많았다"며 "하지만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시도지사협의회 등 기회 있을 때마다 현안 사업을 건의한다. 또 간부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이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뛰어준 결과 신규사업을 대거 반영하는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해 걱정을 해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국고예산으로 반영된 현안사업은 신속한 예산집행 및 행정절차 이행 관리 등을 통해 사업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며 "또 2024년 국고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 조기 발굴 및 설득노력 개발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운 여건에서도 역대 최대 국고 확보에 도움을 준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덧붙였다. 정해명/기자

### '3박4일 나주읍성 살기' 나주시, 문체부 생활관광 활성화 사업 선정

#### 국비 3억원 확보 2025년까지 '나주다움' 선보인다

나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에 힘입어 내년도 체류형 관광상품인 '나주읍성 3박4일 살아보기'를 새롭게 추진한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2023년 생활관광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원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사업은 특정 지역에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그 지역만의 독특한 역사·문화, 생활양식 등을 관광객이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에 중점을 둔다. '한달·일주일 살기' 등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는 관광 수요에 맞춰 '지역다움'을 직접 체험하고 현지인들만의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며 현지인처럼 살아보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사업의 골자다. 전국 22개 지자체가 경쟁을 벌인 가운데 시는 전통 한옥 숙박과 다양한 체험을 접목시킨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유모해 도내 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종 선정 5개 지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나주시 선정 사업인 '나주읍성 3박4일 살아보기'(제목)는 나주 읍성권 전통 한옥에서 일정기간 체류하며 '전통·인문·예술·자연·미식' 5단계를 체험 해보는 힐링형 생활관광 프로그램으로 3년 간 국비 3억원 등 총 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인력거투어', '천연염색(쪽)', '영산강 황포돛배 투어', '나주밥상·배양갱', '고택 음악회 관람', '산림치유활동' 등으로 구성했으며 한국관광공사 컨설팅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시는 내년도 사업성과에 따라 2025년까지 계속해서 국비 예산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 특성을 고려해 나주읍성 한옥 한 곳 한 곳을 로컬 관광 가이드로 육성하고 '나주 한옥 스테



이'를 체류형 대표 관광 브랜드로 키워갈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천 년의 역사를 품고 있는 나주읍성이 체류형 관광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

선을 다하겠다"라며 "관광객에게 힐링을, 주민에게 활력을, 지역에는 경쟁력을 제고 하는 주민 주도의 지속 가능한 관광 프로그램을 구현해가겠다"라고 말했다. 김영안/기자

### 해남군, 2022 내실있는 군정운영 성적도 빛났다

#### 농정업무 대상, 지역경제 4관왕 등 기관표창 역대최다 88건 선정

해남군이 2022년 한 해 동안 각 분야별 종합평가에서 기관표창 88건을 수상하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다. 지난해 79건에 비해 9건 늘어난 수치로, 코로나 위기극에서도 탁월한 성과를 거둔 해남군이 대외적인 좋은 평가로 나타나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연대전 행안부장관상 수상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SNS 대상 공공부문 대상, 대한민국 축제공헌대상, 상반기 재정집행 최우수상, 대한민국 반부패 청렴대상, 어린이 안전대상 국무총리상,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등 전국단위 분야별 주요상을

수상했다. 또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실시한 기초단체장 공약평가 4년 연속 SA등급을 획득하고, 제안활성화 평가에서도 도내 유일 우수기관 선정,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3년 연속 행안부장관상,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우수기관 선정 등 종합적인 군정의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로나19의 여파속에서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개하기 위한 모범사례들이 다수 인정받아 눈길을 끌었다. 해남군은 행정안전부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 최우수상 수상을 비롯해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 국무총리상,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 평가 최우수상 등 3개 분야 최우수상 수상과 함께 전라남도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에서도 대상을 수상해 경제 관련 4관왕을 차지하는 성과를 토론했다. 올해 해남군은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평가에서도 두루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농정업무 종합평가 대상과 농식품 유통평가 대상, 축산시책평가 최우수상, 식량원예업무 최우수상 등으로 농정업무 수상을 휩쓸며 이어 전지훈련 유치실적평가 4년 연속 최우수,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 최우수상, 으뜸마을 만들기 시군평가 최우수 등 주요 시

책 평가에서 최고의 성적을 올렸다. 더불어 코로나 위기관리평가 대상, 서울 국제관광전 최우수마케팅상, 산림복지서비스평가 최우수, 다산안전대상 평가 우수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의 성과를 올렸다. 명현관 군수는 "역대 최대 기관 표창 수상은 군정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와 군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군민이 함께 일군 성과"라며 "열심히 일한 평가로 좋은 성적을 거둔데 큰 보람을 느끼며 내년에도 전 군민이 합심해 해남군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광남/기자

# 충남도, "연말공직기강 확립 철저 등 당부"

### 김태흠 지사, 올해 마지막 실국원장회의서 "정부 업무보고 등 준비 철저"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올해 마지막 실국원장회의에서 내년 조직개편과 인사발표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2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26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연말 분위기에 편승해 시급하지 않은 출장이나 회의 참석 등으로 직무를 태만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실국장들이 솔선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어떤 상황이 됐든 소통하고, 알고 있어야 한다"며 "휴일에도 연락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내년 인사와 관련해서는 "사무인계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일주일 정도는 인사 발령된 직원들이 같이 근무할 필요하다"며 "서류상으로 하는 사무인계보다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도민 불편사항으로 언급된 단속카메라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소 대

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타 지역과 비교해 도내 단속카메라가 도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이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며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정밀조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빠른 시일 내 도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속도를 내 달라"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에 대해서는 "낭비되는 도민 혈세를 바로잡기 위한 합인 만큼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갈 것"이라며 "다만,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내년도 정부예산 9조 589억 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난 2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진행되는 2023년 정부업무 보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충남의 정책과 선도모델 마련 시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최정근기자

# 영월군,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국가공모사업' 선정

영월군이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최근의 기후 변화와 하천 공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새롭게 시작한 본 사업은 홍수 안전을 확보하면서 하천을 여가와 휴식의 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최종 대상지 22곳 중 강원도에서는 영월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영월군에서는 민선7기부터 영월읍 전역을 거대한 자연정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에 동서강정원 조성, 수

월래 프로젝트, 봉래산 개발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선8기 들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영월읍 시가지를 중심으로 평창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청령포 일대의 역사, 문화, 관광, 생태자원을 통합해 친수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이번 사업 또한 그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영월 저류지를 영월군만의 차별화된 문화 플랫폼으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어 4대강 사업 이후 오랫동안 방치됐던 강변 저류지의 변화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영월군에서는 내년말까지 세부적인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2024년부터 총 9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동서강 일대를 홍수에 안전하면서도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영월읍 전역을 명실상부한 정원도시이자 수도권권의 야외정원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동원기자

# 천안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 '본궤도'

### 천안시,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 공정률 25%...관련 도비 예산 196억원 확보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시에 따르면 올해 4월 25일 착공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의 부지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공정률은 25%를 보이고 있다.

도시개발사업 방식으로 부지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천안시는 기반 조성과 구조물 설치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무단 점유 측사 이전 문제도 해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에는 국가대표 훈련시설 용지(11만 5,255㎡)를 대한축구협회에 매각을 완료했다.

조경을 비롯해 상하수도과 전기 및 통신공사 등이 이어서 착수하고, 축구장(4면), 풋살장(4면), 테니스장(5면), 축구장(2면), 그라운드골프장(8홀), 웰빙트레킹코스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안 수영장(25m×6레인)과 체력측정실, 운동처방실 등을 갖춘 체육관 건립도 현재 실시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2023년 7월 착공 예정이다.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11월에 착수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하반기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정평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사업비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을 펼쳐 2022년 추경예산에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비 56억 원의 도비 지원 물꼬를 튼 데 이어, 2023년 본예산에 110억 원과 실내체육관 건립에 30억 원 등 모두 196억 원의 도비(국비 보전금 포함)를 확보했다.

대한축구협회도 축구 국가대표 선

수 훈련시설 조성을 위해 건축허가와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예산 511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11만5,255㎡에 조성하는 국가대표 훈련시설은 소형스타디움(13,098㎡), 실내 훈련장(9,692㎡), 숙소(8,877㎡ 지하1, 지상4), 축구장 6면(천연5, 인조1) 등으로 조성된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는 천안시 서북구 임장면 가산리 120번지 일원 45만1,693㎡에 천안시와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 훈련시설과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추정 사업비 3,094억 원(천안시 1,894억 원, 대한축구협회 1,200억 원)이 투입되며, 건립 후에는 대한축구협회 이전 및 전국단위 유소년축구 대회 개최 등이 계획돼 천안이 한국 축구의 중심으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정근기자

# 아산시, 2023년 정부예산 8,855억 확보

아산시가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예산 가운데 8,855억 원을 확보하면서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될 현안사업 추진에 청신호를 켜고 밝혔다.

이는 아산시가 연초부터 안정적인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박경귀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국회 및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피력해 온 결과로 보고 있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주요 현안 사업이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중 노력했으며, 신규사업과 지역 현안사업 발굴을 위한 각종 보고회와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내년 신규사업 정부예산으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 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 24억 ▲아산시 공설봉안당 확충사업 6.8억 ▲천안천 및 둔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80억 ▲농촌협약(기초생활거점, 시군역량강화) 13.9억 ▲온천동 온양2동 5동 도시침수대응사업

10억 ▲배미3·도고1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4억 등 총 15개 사업에 295억 원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주요 현안 계속사업으로는 ▲당진~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 1,016.4억 ▲배방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 75.2억 ▲온양·송악·관대 등 하수관로 개량사업 67.4억 ▲둔포2·장재·곡교·석정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 37.3억 ▲장재 국민체육센터 건립 20억 ▲아산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20억 등이 반영되어 대규모 SOC 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아산지역으로 유치가 확정된 충남 e스포츠 경기장 건립사업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10억 원의 예산이 신규 반영되어 게임산업과 e스포츠 메카로 거듭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예산 확보에 열정적으로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힘들게 확보한 소중한 재원을 만큼 신중하고 신속하게 지역 현안사업을 추진하여 아산시의 발전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홍준표 대구시장, 충북도 공직자 대상 특강 실시

### 김영환 충북지사 대구시청 방문에 대한 화답



홍준표 대구시장은 26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충북도청 공직자를 대상으로 '미래를 향한 유일한 길, 혁신'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홍 시장의 충북도청 방문은 지난 9일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구시청 방문에 따른 답방의 의미로 이뤄졌다.

홍 시장은 이날 일방적인 강의 형식이 아닌 충북도 공직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으며 그에 대한 응답 형식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날 도 공무원들은 '청년 유출 문제', '인사 혁신 방안', '마트 의무휴일 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고, 홍 시장은 하나하나 질문에 답했다.

지방의 청년 유출과 관련해 홍 시장은 "지방의 청년 유출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청년들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은 지역에 일자리가 없고, 꿈도 꿀 수 없다"며 "대기업, 첨단산업 등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취업 자리를 전국으로 분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의 원인 중 하나로 '항공물류'의 인천공항 집중화를 꼽았다.

홍 시장은 "우리나라의 첨단산업 수출은 대부분 항공물류로 이뤄지는 데, 98% 이상이 인천공항으로 집중돼 있다"며 "청주를 비롯한 전국 공항으로 이를 분산시키고, 공항 주변을 첨단산업단지 개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구시의 인사혁신과 관련해 홍 시장도 홍 시장은 지방자치의 권한을 울리고 중앙정부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트 의무휴일과 관련해 홍 시장은 "마트를 강제로 문을 닫게 한다고 주변의 전통시장이 매출이 늘지 않는다. 오히려 유동인구가 줄며 주변 상권이 어려워질 뿐"이라며 "요즘 사람들의 소비행태를 파악하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 화천~포천 간 광덕터널 개설 10년 만에 정부예산 첫 반영

화천군민들의 숙원인 광덕터널 도로 건설 사업비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최근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함에 따라 강원도와 화천군이 행정안전부에 증액을 건의한 2023년 점경권 발전지원 예산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강원도와 화천군은 이번 건의를 통해 테마형 접경거점 시장·상가형 사업비 14억원, 광덕터널 도로건설사업 7억원 등 내년에 필요한 국비 총 21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내년 실시설계 용역비가 처음으로 정부 정규 회계연도 예산에 편성됐다는 점은 향후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

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광덕터널 도로건설 기본설계 용역은 지난해 12월 시작됐지만, 용역비 15억원의 정부 예산이 아닌, 강원도 자체 예산이 사용됐다.

지난 2013년부터 추진 중인 광덕터널 도로건설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중 7억원을 점경권 발전지원사업비로 지원함에 따라 사업의 첫 물꼬가 터졌다는 평가가 지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화천군은 강원도가 지난해부터 도가 자체적으로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내년 실시설계까지 이뤄진다면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화천군

위낙 큰 사업비가 소모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의 점경권 발전지원예산(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지원 없이는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광덕터널 도로건설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중 7억원을 점경권 발전지원사업비로 지원함에 따라 사업의 첫 물꼬가 터졌다는 평가가 지역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화천군은 강원도가 지난해부터 도가 자체적으로 기본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내년 실시설계까지 이뤄진다면 사업추진을 위한 절차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화천군

은 물론 양구와 인제 등 강원 영서북부는 물론, 영동지역에서 경기북부 수도권으로 보다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다.

화천군이 국방개혁에 대비해 조성 중인 사내면 산업단지에도 물류 등의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사업추진을 위해 발벗고 나서 준 강원도에 군민을 대표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며 "수도권~강원 영서북부 지역을 잇는 광역교통체계가 구축된다면, 수도권으로 가는 최단통로가 확보되는 것으로 접경지역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 제천시 비상대비 및 민방위활동 '국무총리 표창'

제천시는 '2022년 비상 대비 및 민방위 활동 진흥 분야' 전국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이 표창은 행정안전부에서 을지연습 훈련 및 비상 대비 자원관리 등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탁월한 공적을 세운 중앙,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에 수여하는 상으로, 시는 민·관·군·경이 공조한 을지연습과 화랑훈련으로 비상 대비 체계 확립, 실효성 있는 총무계획 수립, 군부대-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 공유 등 새로운 안보 위협 대응책 마련, 전시장비·비축물자·관련 시설, 장비 체계적 관리 등 다양한 부분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창규 시장은 "비상 상황 대비를 위한 제천시 전 공무원의 노력과 관계기관의 협조, 시민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을 대비하고자 비상 대비 태세 확립과 안보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창원특례시, 2023년 중소기업 육성 자금 2000억원 지원

창원특례시는 26일 오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사업영위와 시설투자에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을 위한 지원시책이다. 2023년은 총 2000억원 규모로 자금별 경영안정자금 1500억원(상반기 800억원, 하반기 700억원), 시설자금 500억원을 편성했다.

지원내용은 협약금융기관에서 신규대출 시 발생하는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며, 중소기업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대비 0.5%p 상향한 2.5%p로 2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창원특례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공장등록한 제조업, 조선사·항공협력 제조업,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3종(하수 및 폐수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리업),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이다.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공공지출금 제도업체(건축물대량용도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경우)도 지원한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재무제표상 매출액 50% 범위에서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3억원(특례기업 4억원)·시설자금은 5억원(특례기업 7억원)이며, 업체당 총 한도액 5억원(특례기업 7억원)을 넘을 수 없다.

단, 소프트웨어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종,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은 경영안정자금 1억원·시설자금 2억원 내로 지원하며,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공공지출금 제조업체는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1억원 내로 지원한다.

아울러, 2023년에는 원자력산업 조기 정상화를 위해 원전산업 관련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건설·유통·운수업 등 원전산업 관련 특 업종이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대출지원으로 이차보전을 2.5%p로 경영안정자금 4억원·시설자금 7억원 총합 산한도 7억원으로 융자한도가 일반기업에 비해 2억원이 추가된다.

신청은 오는 2023년 1월 4일부터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9개 시중은행을 통해 실시하며, 시의 직접적인 대출이 아닌 은행권 협조용자이므로 사전에 은행과 상담 후에 신청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경원 제1부시장은 "지속적인 금리인상과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중소기업의 체감경기 약화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창원특례시는 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기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 경북도, 올해 9조여원 투자유치...1.1만여명 고용창출

민선7기 4년 31조 9428억원, 민선8기 6개월 4조 6903억원 유치

경상북도는 26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지역 기업과 시군 관계자, 유공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경북 투자유치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 투자유치대상 기업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은 기업은 총 8개사(대상 1, 우수상 4, 특별상 3)이다.

수입에 의존해 오던 영역을 국산화해 국내 산업의 역량을 한 단계 끌어 올린 기업과 경북에 투자를 결정하고 신규 고용을 창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기업에게 상이 주어졌다.

우선 대상을 수상한 에코프로머티리얼스는 올해 4050억원을 투자하고 209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인 전구체 생산력을 바탕으로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국내 공급망을 구축하여 국내 이차전지 생태계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했다.

지역의 미래 먹거리인 이차전지 산업의 주도권 확보에 힘을 실어준 활약을 이끄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을 수상한 기업들에서는 향후 전망을 내다보는 과감한 투자가 돋보였다.

자화전자는 본사가 청주에 있는 전자부품 제조 기업으로 구미국가산단에 투자를 결정해 올해 1032억원의 규모의 투자를 진행해 265여명에 이르는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최첨단 소재인 아라미드 분야에 2110억원 투자를

진행해 구미 국가산단 활성화에 큰 공을 세웠다.

영천 소재 기업인 한중엔시에는 자체 기술개발을 통해 전자 부품과 에너지 저장장치(ESS)분야에 신규 투자를 추진하고 고용을 창출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했다.

디에시스는 중국 사업장을 경주로 이전한 국내복귀기업으로 경주시와 지난해 12월에 투자양해각서 체결 후 초기 투자를 완료하고 올 4월부터 사업장을 가동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했다.

특별상을 수상한 기업들의 노고 또한 빛났다.

우전지엔에프는 수입에 기대어 온 이차전지의 원료인 황산니켈을 국산화하여 이차전지소재산업을 발전시켰고 효성그룹과 합작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

나노가공기술을 바탕으로 나노 비료를 개발하는 벤처기업인 엔에스비는 지난해 경산 지식산업지구에 투자해 국내의 판로를 확장했다.

벤처 창업에서 출발해 섬유강화 복합재료 장비 업체로 성장 중인 티포엘은 경산 4차 산단에 투자해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자치단체 부문 대상은 경북의 산업을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는 구미시와 포항시에 돌아갔다.

구미시는 올해 윈드톱 투자유치서비스 지원으로 SK실트론 대규모 투



자 투자를 성사시켜 이차전지, 반도체 및 방위산업분야 등 총 3조 3942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다.

포항시는 블루밸리 국가 산단 내 우수기업의 투자 유치 및 14개 유망 기업을 총 1조4321억 원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여 1995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외에도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이화학 주무관과 경주시 투자유치과 김여진 주무관이 공로를 인정받아 공무원 부문에서 대상 수상했다.

경북도는 올 한해 8조8,228억원의 투자유치와 1만1469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SK실트론(웨이퍼)이 1조원, LG이노텍(반도체 기판)이 1.4조원을 투자했고 한화시스템(레이더)과 LIG넥스원(유도무기)이 각각 1100억과 2000억원을 투자했다.

도 SK머티리얼즈그룹 포틴(실리콘 음극체)과 CNGR(전구체, 1조원 투자)이 이차전지 소재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했다.

이처럼 이차전지, 첨단소재,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모빌리티, 방위산업, 원자력 산업 등 성장가능성이 뚜렷한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해 지역경제의 미래 또한 전망이 밝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내외적 경제위축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투자기업 대표와 근로자 여러분, 도·시군 관계자들의 정성과 노력 덕분이다"면서 "도는 앞으로도 반도체, 이차전지 등 미래 첨단 산업분야에서 세계 경쟁력 있는 더 많은 기업들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하기 좋은 환경을 확실히 만들어 놓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근수기자

## 경기도, 반도체특화단지·지역화폐 등 국비 17조 8,110억 원 확보. 역대 최대 규모

경기도가 2023년도 예산으로 국비 17조 8,1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16조 5,605억 원보다 1조 2,505억 원(1.6%)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다.

윤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1천억 원과 별내선 복선전철 105억 원 등이 증액돼 내년 경기도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도 3,525억 원 증액됐다.

도는 지난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예산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17조 8,1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서민·사회적 약자 등을 지원하는 복지 분야 예산은 경기도 인구증가와 정부 복지정책의 확대 영향으로 2022년 9조 1,419억 원에서 2023년 11조 6,912억 원으로 11조 원을 돌파했다. 대표적인 사업에 ▲기초연금 3조 4,243억 원 ▲부모급여 4,885억 원 ▲주거급여 5,796억 원 등이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경우 전년 확보액 4조 4,073억 원 대비 다소 적은 금액인 3조 8,093억 원을 확보했으나 사업 준공 및 사업 공정을 등에 따라 일부 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기존 사업들은 문제없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회간접자본 국비 감소에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적정화 기조도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파주~삼정) 3,395억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188억 ▲수도권 제2순환(포천-화도) 민자고속도로 5,382억 ▲구리~안성(서울-세종)고속도로 1,558억 등이 있다.

2023년 정부예산안이 의결되기까지 경기도는 주요사업에 선정·발굴해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요청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과 예산정책협의회, 국회 여결위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 지역국회의원을 직접 찾아다니며 지역별 맞춤형 자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국비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그 결과 당초 정부예산안에 담긴 17조 5,212억 원 대비 2,989억 원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중액된 2,898억 원은 55개 사업 예산으로 ▲별내선 복선전철 105억 원 등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사업에 848억 원 ▲노인 일자리 사업 119억

원 등 복지 사업 126억 원 ▲윤인·평택 반도체 특화단지 기반시설 특별지원 1천억 원 및 지역화폐 발행 지원 3,525억 원(전국) 등 산업·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1,668억 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91억 원 등 기타 사업에 256억 원이다.

정부안에 전액 삭감됐던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국회에서 3,525억 원(전국)으로 증액됐으나 이는 2022년과 비교하면 50%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김동원 경기도지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역화폐 예산이 금년 대비 절반이나 깎였다. 매서운 경제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그러나 있고 있는 방한복을 벗기는 일"이라며 "경기도는 경제 어려움 속에서 민생과 취약계층을 지키는 데 더욱 힘을 기울이겠다. 지역화폐의 경우 이미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지만, 앞으로 추경 등을 통해 수요에 맞춰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특별 지원 예산도 국회에서 신규 증액 반영됐다.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예정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지원 예산으로, 윤인·평택에 각 500억 원씩 1천억 원 증액돼 경기도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도약하는 데 크게 뒷받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류인권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국비 확보에 힘쓰는 경기도 국회의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며 "어려움 극복을 위한 국비를 적시적소에 신속 집행해 최대한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케이메디허브, 현대바이오사이언스 무고통 항암제 호주 임상용 생산지원

세포독성항암주사제 생산시설을 갖춘 케이메디허브에서 글로벌 임상시험 약품 생산 지원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 첨단 약물전달기술(DDS)을 결합한 글로벌 임상시험용 항암제 생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계약으로 케이메디허브는 최근 호주에 자회사를 설립한 현대바이오사이언스의 '무고통 항암제' 폴리탁셀(Polytaxel)의 글로벌 임상용 의약품 생산을 지원하게 됐다.

폴리탁셀은 대표적 화학항암제 도세탁셀(Docetaxel)에 현대바이오사이언스의 첨단 약물전달기술(DDS)을 결합한 신약 후보물질이다.

도세탁셀의 특성이 정상세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암세포에만 약효를 집중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케이메디허브 의약품생산센터는 세포독성항암주사제 생산시설을 토대로



국내를 포함하여 글로벌 임상에 도전하는 크고 작은 기업뿐만 아니라, 제조시설을 갖추지 못한 벤처기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에는 현대바이오사이언스가 필요로 하는 GMP 공정 조건을 토대로

주사제 생산 장비에 적용 및 생산 예정이며, 임상용 의약품 생산을 통해 성공적인 다음 단계 진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케이메디허브 의약품생산센터는 국내 공공기관 유일의 세포독성항암주사제

GMP 적격기관이다. 세포독성항암주사제 반제품 조제시설을 비롯하여 국내 최고 무균 공정을 위한 외부 환경 격리 시스템(아이솔레이터) 도입 등 글로벌 수준의 장비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액상용 및 동결건조용 항암주사제 개발 및 임상시험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양진영 이사장은 "케이메디허브 의약품생산센터의 생산 및 GMP 수준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에서 인정받을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은 기업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술 개발과 생산을 계속해서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 (주)코센, 정읍 제3 산업단지에 총 600억원 규모 투자 '확정'

50여 명 신규 일자리 창출·지방세수 등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스테인리스 강관 생산기업인 (주)코센이 정읍 제3 산업단지에 공장 확장을 위한 증설 투자를 확정했다.

정읍시와 (주)코센은 26일 정읍시청 중회의실에서 이학수 시장과 김광수 대표를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코센 정읍공장 신축 투자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주)코센은 제3 산업단지 내 26,446㎡(8,000여 평) 부지에 총 600억 원을 투자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공장 신축과 함께 생산시설을 갖춘 계획이다.

올해 도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내년 공장 신축과 리모델링을 마무리한 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제품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회사 운영에 따른 50여 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등 투자 이행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투자보조금 지원과 인허가 절차 진행 등 행정적 제반 필요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주)코센은 스테인리스 강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강관은 반도체 생산시설과 석유화학 생산시설 건립에 필수적인 제품으로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을 납품처로 확보하고 있다.

지난 3월 철강 제품 생산기업인 (주)코스틸이 인수해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정읍 제3 산업단지에 투자를 결정했다. (주)코센은 투자 후 매출 1,0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

다. 이학수 시장은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 등 어려운 시기에 정읍시에 투자를 결정한 (주)코센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주)코센이 우리 정읍을 대표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대표는 "우리 기업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읍시에 감사

드립니다"며 "환경해 주신만큼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저희 (주)코센이 정읍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코센은 이날 (주)코센-정읍시 간 입주 투자협약(MOU)을 기념하며, 정읍시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최하은기자

### 주낙영 경주시장, 전국소상공인연합회 선정 목민상 수상

#### 주낙영 경주시장 “지역경제 최전선에서 묵묵히 자리 지켜주신 소상공인들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 소감 밝혀

경주시는 주낙영 시장이 전국소상공인연합회 선정 목민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17년부터 매년 소상공인 권익과 경쟁력 제고에 공헌한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에 목민상을 주고 있다.

주 시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을 등삼중고를 겪고 있는 지역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고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보증의 지원제도 상향, 이자보전 시행기관 확대 및 보전을 상향 관련 조례 개정, 저신용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지원사업 확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한 경주페이

발행 등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또 우수제품온라인 플랫폼 판로지원, 새바람체인 기업사업, 공공배달앱 운영, 착한가격업소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유지보수 지원 등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점도 인정받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방어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윤타용/기자

### 해운대구, ‘2022 한국관광의 별’ 수상

#### 해운대 그린레일웨이·해변열차...문체부 선정, 혁신 관광지

‘해운대 그린레일웨이·해변열차’가 국내 관광분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한국관광의 별’ 본상 수상자로 선정돼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받았다.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시상식이 열렸다.

‘한국관광의 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내 관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한 해 동안 한국 관광 발전에 기여한 관광자원, 지자체 및 단체, 개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지자체, 전문가, 국민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전문가 서면평가, 현장 실사, 국민 만족도 평가, 선정위원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해운대 그린레일웨이·해변열차’는 2013년 폐선된 동해남부선 옛 철길 미포~송정 구간을 산책로와 해변 열차로 개발한 관광지다.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철로를 독특한 관광콘텐츠로 탄생시켜 올해 120만 명이 이상 해변열차를 이용했다.

문체부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관광지인 그린레일웨이·해변열차는 창의적인 콘텐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돋보여 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그린레일웨이·해변열차에 대해 홍보와 해외마케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구청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해운대가 오고 싶은 도시, 경험하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종진/기자

### 박일호 밀양시장, ‘제60회 K-Theater Awards’ 공로상 수상

박일호 경남 밀양시장이 지난 25일 서울 아크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개최된 2022년 대한민국 연극인 축제 ‘제60회 K-Theater Awards’ 시상식에서 지자체장으로는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K-Theater Awards’는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연극공연의 발전에 기여한 연극 관계자들을 위해 매년 말(사)한국연극협회(이사장 손정우)에서 개최되고 있는 행사로 연극인들의 축제의 장이자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하는 역사 깊은 행사다.

박일호 시장은 대한민국의 대표 연극제인 ‘제40회 대한민국 연극제’와 ‘밀양공연예술축제’를 밀양시에서 동시에 개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극공연의 저변을 확대했으며,

미래 연극계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위한 ‘제26회 대한민국 청소년 연극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대한민국 연극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상을 수상하게 됐다.

시는 올해로 22회를 맞이한 밀양공연예술축제가 대한민국 공연예술을 대표하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전국 규모의 공연예술 행사 유치와 성공적 개최로 연극도시 밀양의 도시브랜드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또한 밀양의 연극인 육성, 밀양이러나 인프라 확장 등으로 전국의 연극인들이 밀양으로 찾아오는 연극의 도시 밀양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

최덕수/기자



### 대구 중구 2022년 장애인복지사업평가 대상 (전국1위) 수상

대구 중구는 ‘2022년 장애인복지사업평가’에서 229개 시군구 중 전국 1위인 대상(대구 유일)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장애인복지사업평가는 장애인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 조성과 지역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2020년 도입됐으며 매년 장애인 자립지원사업,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등 총 4개 분야 37개 지표를 평가하여 우수한 지자체에 주어지는 상이다.

중구는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단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중구만의 특색 있는 맞춤형 장애인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4시간 장애인 공공돌봄체계 확충을 위하여 중증장애인활동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기준을 선도적으로 완화하고, 발달장애인 예술공연팀 운영 및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등에 구비예산을 지원하는 등 지역특화 장애인일

자리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왔다.

또한, 장애인의 수요와 욕구반영을 위한 장애인 실태조사를 전국 시군구 최초로 실시했으며, 외상 중증장애인에 대해 거저귀와 의료용품을 지원하는 스마일 어게인사업과 전통철타이어 장애인의 장거리여행 편의지원을 위한 철타이어전동화키트 대여사업 등 다양한 신규 장애인복지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대상 수상을 초적으로, 2023년에는 제1기 중구 장애인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민·관협력을 통한 내실있는 장애인복지사업의 추진과, 민선8기 공약인 장애인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장애인 뿐 아니라 주민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한 맞춤형 복지중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김동현/기자



### 전진선 양평군수, '2022 KFA 어워즈'에서 감사패 수상

#### 올해의 남녀 선수 손흥민(30·토트넘), 지소연(31·수원FC)과 함께 수상의 영광

전진선 양평군수가 지난 23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대한축구협회(KFA)가 주최한 ‘KFA 어워즈 2022’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한민국 축구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의 선수를 비롯해 우수 지도자, 심판 시상과 축구발전유공 공로패, 감사패 등 9개 분야의 시상식이 진행됐다.

전진선 군수는 전대길(아이티21닷컴 대표), 정석영(TV조선 국장), 구강본(KT 본부장), 이종근(붉은악마 의장) 등과 함께 감사패를 수상했으며, 올해의 영플레이어상은 남자부 양현준(강원FC)과 천가람(울산과대학)이, 지도자상은 파울루 벤투 전 축구대표팀 감독과 김은숙 현대제철 감독에게 돌아갔으며, 올해의 심판상은 정동식 심판이 받았다.

전진선 군수는 지난 경기도 어울림 축구대회, 경기도협회장배 동호인축구대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성공적으로 대회를 유치했으며, 또한 양평FC의 성공적인 운영으로 2023년 K3승격이라는 성과를 이뤘다.

전진선 군수는 “양평의 선수, 지도자, 동호인 등 모든 축구인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2023년도에도



양평군 축구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고,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은 물론 이용수, 김기홍, 이영표, 홍은아 부회장 등 많은 협회 관계자들에게 축하를 받았다.

한편, 올해의 선수상은 2022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준

우승, 2022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동아시아컵) 남자부 준우승, 여자부 3위,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16강이라는 성적을 이루는데 기여한 손흥민 선수와 지소연 선수가 선정됐다.

이성윤/기자

### 경남도 ‘2022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수상자 선정

경남도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체와 건설인에게 수여하는 ‘2022년 자랑스러운 건설인상’에 지역업체 10개사와 개인 2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자는 ‘종합건설업체’ 4개사 ▲ 동흥종합건설(주) ▲ 성보종합건설(주) ▲ 명성종합건설(주) ▲ 신승종합건설(주)와, ‘전문건설업체’ 6개사 ▲ (주)정후토건 ▲ 광일건설(주) ▲ 남명아이씨씨(주) ▲ (주)영성조경 ▲ (주)한려건설 ▲ 우경테크(주)이다. 또, 개인 2명은 ▲ 삼성물산 손

유석 부장 ▲ 삼성건설(주) 임진근 부장이 선정됐다.

동흥종합건설(주) 외 9개 종합·전문 건설업체는 최근 2년간 도금액, 지역업체 하도금액, 도내 자재·장비사용,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공헌 등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지역건설업의 위상을 높이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우수 건설인으로 선정된 삼성물산 손유석 부장과 1인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지역업체 참여 등 상생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경남도는 건설인상 선정에 앞서, 건설협회와 시군으로부터 우수 건설업체와 건설인을 추천받아 자체 심사를 거쳐 지난 12월 13일 개최한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에서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한편, ‘자랑스러운 건설인상’은 지역 건설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건전한 건설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장재현/기자

### 구미시, KBI국민산업 김선진대표이사 노사문화유공 정부포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KBI그룹 소속으로 지역의 대표적인 환경전문기업인 KBI국민산업(구미 3 국가산업단지)은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주관 22년 노사문화유공 및 지역노사민정협력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에서 김선진 KBI국민산업 대표이사가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선진KBI국민산업 대표이사는 지난 35년 동안 지역 환경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로와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모범적인 노사문화 정착에 기여했다.

김선진KBI국민산업 대표이사는 “노사 상생을 통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함으로 회사의 발전이 있는 것”이라며 “급변하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공

정하고 건강한 노사문화의 정착에 함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BI국민산업은 대구경북 지역의 경제를 이끌던 옛 갑골그룹을 모체로 KBI동국산업, KB오트렉 등 자동차 부품 사업과 KBI메탈, KBI알로이, KBI코스모링크 등 전선·동 소재 사업을 주력으로 강관, 건설, 환경, 섬유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KBI그룹의 환경에너지 전문회사로 30여년간 지역 환경산업의 일선에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했으며 구미시 장학재단에 1억원을 기탁하는 등 사회공헌사업과 나눔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방법을 안내하는 자원관리 도우미를 선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 밀착형 사업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정착으로 심사위원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봉원/기자



### 서귀포시,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분야 “대상” 수상

서귀포시는 22일 로얄호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보건복지부와 한국한 의약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한의약 건강돌봄 성과대회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했다.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은 거동불편 등의 사유로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자를 한의사가 직접 찾아가 진맥, 침, 뜸, 부항, 건강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국에서 총 16개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올해 방문 한의진료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상자의 통합적인 복지지원 연계를 위해 한의사뿐만 아니라 약사·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 등 지역별 연계를 활성화하고, 한약제제 복약 지원 애플리케이션 ‘한약 돌봄이’를 자체 개발하여 글을 읽기 어려운 어르신이나 인지기능

저하 어르신의 복약순응도 향상에 기여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대상을 수상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정 건강도시 행복 서귀포시라는 시정목표에 걸맞게,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든든한 건강돌봄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지원/기자

### (재)광명문화재단, 2022년 기획프로그램 성료

(재)광명문화재단(대표이사 어연선)은 연극 '베로나의 두 신사'와 '연희도깨비', 광명-신진 청년 작가 1기 육성사업 '인피니트(Infinite)' 온라인 VR 전시를 끝으로 2022년 기획공연 시리즈와 기획전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지난 1월 재단 출범 5주년을 맞아 개최한 신년음악회 '기운생동'을 시작으로 기획공연 25건과 기획전시 4건을 진행하며 광명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재)광명문화재단은 "2023년에도 광명시민의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 증대와 건강한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맛 콘서트' 시리즈 '국악의 맛 - 이차람 콘서트', '클래식의 맛 - 에스메 카라멧 콘서트', '재즈의 맛 - 선우정아 콘서트'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였다.

특히 '재즈의 맛 - 선우정아 콘서트'는 전석 매진되는 기염을 토했다. 전년도에 많은 사랑을 받은 현대무용에 이어 한국무용과 발레도 광명시민을 찾았다. '동무동락'에서는 다양한 한국 전통춤, 김용걸의 유럽 발레 여행 '모던 발레 갈라'에서는 한국 발레리노의 전설인 김용걸이 창작한 다양한 발레작품을 선보였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세대공감 시리즈로 광명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광명극장에서 음악극 '나무의 아이', 인형극 '루루섬의 비밀', '나무도령 이야기'로 아동 공연을 선보이는 한편,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는 이순재, 정영숙 등 걸출한 원로배우들이 출연하는 연극 '사랑해요, 당신'으로 중장년층 관객을 사로잡았다.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문화사업의 일환으로 공연된 연극 'XXL 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거울'과 '베로나의 두 신사'는 관내 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청소년들에게 연극관람 경험을 제공했다. 이 밖에도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가장무도-일상을 위한 일탈', 테너 김세일의 '겨울 나그네'에 관내 소외계층을 초청해 문화생활을 지원했다.

'공상물리적 춤', '안녕, 지구'는 본 재단에서 처음으로 진행한 배리어 프리 공연 시리즈다. 수어통역, 자막통역, 터치투어, 음성해설 등 다양한 접근성을 지원하며 모든 사람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기초지역문화재단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앞장섰다.

명화 레플리카 특별전 '봄의 인상'展에서는 빈센트 반 고흐, 오귀스트 르누아르, 클레드 모네 등 대중이 사랑하는 작가들의 명화를 레플리카 작품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미디어 아트와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사용한 '빛의 르네상스 히에로니무스 보쉬'展은 빛을 사용한 색다른 형태의 전시로 광명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역 중진작가 초대전 '광명의 부장들'과 2022년 광명 신진-청년 작가 육성 프로그램 '인피니트(Infinite)'를 통해 광명에서 활동하는 시각예술 작가들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데 힘썼다. '인피니트(Infinite)'는 광명문화재단 최초로 온라인 VR 전시를 마련하여 전시장을 방문하지 않아도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윤용민기자



### 화성시문화재단, 2023년 계묘년 맞이 뮤지컬 갈라 신년콘서트 개최

(재)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대)은 '화성시문화재단 2023 뮤지컬 갈라 신년콘서트'를 2023년 1월 7일 오후 5시 유엔아이센터 화성아트홀에서 개최한다.

2023년 계묘년의 힘찬 출발을 기원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재단에서 선보이는 이번 신년콘서트는 재단의 2023년 첫 기획공연이자, 2018년 이후 약 4년 만에 다시 선보이는 신년 축하 공연이다.

신년콘서트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뮤지컬 갈라 프로그램으로 준비된다.

독보적인 월드클래스 가창력을 가진 손승연, 베테랑 뮤지컬 배우 이경명, 팬텀싱어1의 우승팀 '포르테

디 콰트로'의 리더이자 뮤지컬 배우로 활약 중인 고훈정이 출연해 다양한 뮤지컬 넘버를 선보인다. 또한 음악감독 민활란의 지휘로 환상적인 하모니를 선보일 15인조 뮤지컬밴드 오케스트라와 최고의 호흡을 보여줄 뮤지컬 앙상블(신계준, 김지철, 이시윤, 강윤석, 안홍주)도 함께 출연해 더욱 풍성하고 화려한 무대를 완성할 예정이다.

티켓 가격은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며, 초등학생 이상 관람가다. 자세한 공연 정보 확인은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나 전화 또는 SNS(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접할 수 있다.

양시현기자



## 김천시, 스포츠산업 김천의 미래를 선도하다

### 2022 김천시민체육대회 개최로 시민통합과 단합에 기여



▲ 제60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김천시는 올 한 해 스포츠대회 및 행사로 풍성한 한해를 보냈다. 2022 김천시민체육대회 개최, 제60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시부 종합 5위 달성,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김천시 유치, 제12회 김천전국수영대회, 제38회 교보생명 꿈나무 체육대회 등 43개의 전국단위 대회 개최, 30개 팀의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스포츠 중심도시 김천의 명성을 굳건히 다졌다.

2023년에도 차별화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전지훈련팀 적극 유치, 두 개의 프로구단(김천상무프로축구단, 하이패스배구단) 운영을 통한 새로운 스포츠 관람문화 확산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을 자랑하는 김천종합스포츠타운에서는 수영을 비롯한 테니스, 스쿼시 등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앞으로 노후 경기장시설 개보수와 함께 제2스포츠타운이 조성되면 매년 60여 개의 전국단위 대회를 개최할 수 있어 연중 스포츠가 함께 하는 활력 넘치는 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된 이번 대회는 3만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대한태권도협회의 화려한 시범공연과 싸이버거의 공연으로 시민체육의 시작을 알렸다. 뒤이어 시청 취타대와 김천시캐릭터, 42개 종목 단체의 기수단을 필두로 22개 읍면동의 특색 있는 아이디어로 구성된 입장식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체전의 하이라이트인 성화점화는 코로나19 극복과 체육발전의 유공자들로 구성된 4개팀 19명의 성화주자들을 거쳐 성화대의 불꽃이 피어올랐으며, 개회식 행사 후에는 박군과 김연자의 축하공연으로 시민들의 흥을 돋웠다.

이어서 진행된 운동경기는 읍면동대항의 일반부와 학생부, 장애인부, 여성단체로 나누어 승부차기, 한궁, 단체줄넘기 등 12개 종목으로 진행됐으며, 오후에는 읍면동의 시민대표가 참가한 시민노래자랑이 개최됐고, 진성, 장윤정의 흥겨운 축하공연이 이어졌다.

폐회식행사는 종합점수에 따른 성적표 및 시상식이 이루어졌고, 성화소화과 함께 불꽃놀이로 시민체육의 성대한 막을 내렸다. 이번 시민체육전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낸 시민들에게 위안과 격려를 주고 시민통합과 단합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7월 15일부터 4일간 포항에서 개최된 제60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서 김천시는 28개 종목에 830명의 선수단이 출전하여 8년 만에 시부 종합 5위를 달성했다. 또한 지난 대회에 비해 크게 약진한 지자체에 주어지는 성취상도 수상했다.

사전경기로 치러진 배드민턴의 우승을 시작으로 유도, 사격, 궁도 등 투기종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고,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주는 수영, 골프, 산악에서는 4위를 기록해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었다. 보디빌딩, 우수 복싱 종목도 깜짝 활약을 해주었고, 특히 아마추어로 구성된 성의여고 배구팀은 강호 구미시를 만나 멋진 경기를 펼친 끝에 짜릿한 우승을 차지했다.

그리고 트랙, 필드, 마라톤 3개 종목의 점수가 결려있는 중요한 육상종목에서는 실업팀을 보유한 8개시를 상대로 준수한 성적을 내준 한일여고 학생들의 투혼의 질주가 빛났다. 그 밖에 모든 선수들이 순위경쟁에 중요한 승부처마다 혼신을 다해 좋은 경기를 펼쳐주었다.

김천시와 김천시체육회는 올해의 부진한 종목과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수선수 발굴과 훈련을 통해 2023년도 올린군에서 개최되는 제61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서는 더 큰 목표에 도전하고자 한다.

경북도민체육전은 23개 시·군에서 시범종목을 포함한 29개 종목, 2만 5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도내 최대의 체육대회로, 김천시는 지난 2013년 제51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개최 이후, 12년 만에 도민체육대회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민체육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30개의 전지훈련팀을 유치했다. 이로써 25만여 명의 선수단 및 가족들이 방문하여 250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냈다. 특히 숙박업소에는 대회기간 중 방이 부족할 정도로 선수들이 많이 왔다고 한다.

김천시가 전략종목으로 유치하고 있는 수영대회는 저비용·고효율 효과를 내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매년 많은 선수들이 참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효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제12회 김천전국수영대회를 비롯해 제18회 꿈나무 전국수영대회, 2022 교보생명컵 꿈나무 수영대회, 수영 국가대표 선발대회, 제94회 동아수영대회 등 대규모 수영대회를 차례로 개최하여 수영도시 김천 이미지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했다.

한편 여름방학 시즌에 개최되는 '교보생명컵 꿈나무 체육대회(수영, 테니스, 유도, 탁구, 체조)'에는 잠재적 관광객인 선수들과 가족들이 참가하는 대회로 대회기간 중 선수와 임원, 가족 등 1만여 명이 김천시를 방문했다.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김천시 대표 특산품인 자두 시식회를 개최하여 김천시 홍보에도 한몫했으며, 대회기간 중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한 '교보생명컵 그린올림픽'캠페인도 진행해 환경의식을 고취하는 물론 청소년들의 정서순화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내년에도 김천시는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통해 전국 최고의 스포츠 특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고자 한다.

이봉원기자

## 2022년 삼척대게축제, 오는 31일부터 3일간 열려

삼척시는 오는 12월 3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3일간 삼척 이사부광장 일원에서 '2022년 삼척대게축제'를 개최한다.

삼척시가 주최하고 정라동번영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대게 삼척이 대~~게 좋다!"라는 축제주제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열리며,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12월 31일 오전 10시부터는 대게 낚시를 비롯해 대게, 비빔밥, 도루묵 등 시식 행사와 대게 이벤트, 대게 경

매 등 다양한 체험행사가 운영되며, 15시에는 이사부광장 내 특설무대에서 개회식이 진행된다. 개회식에 이어서는 온가온, 실하운 등 초대가수의 축하공연도 이어진다.

또한, 1월 1일 오전 7시부터는 북공연, 대게 어묵 시식 등 해맞이 행사가 병행되며, 행사기간 동안 매직쇼, 난타, 지역 가수 공연과 음급처치, 가족공예, 천연비누, 달고나, VR체험 등 체험부스와 향토음식(전통국밥, 국수 등), 푸드트럭(꼬치, 튀리스 등) 등 먹거리 행사가 지속 운영된다.

한편, 삼척시는 안전한 행사 운영을 위하여 행사 안전관리, 무대 안전시설 관리, 응급의료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행사기간 내내 상황실을 운영하여 주요상황을 파악하고 즉시 모를 사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삼척 대게의 우수성을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홍보하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위축된 지역 경기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이등원기자



## 천안문화재단, '2022 제야행사' 개최

### 행복으로 경충! 건강으로 경충! 소망으로 경충! 2023 새해맞이

천안문화재단은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의 안녕과 희망을 기원하는 '행복으로 경충! 건강으로 경충! 소망으로 경충! 2023 새해맞이-2022 제야행사'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제야행사는 오는 31일 오후 10시 30분부터 천안시청

봉서홀 앞 주차장에서 진행된다. 주요 행사는 ▲제야 음악회 ▲신년 카운트다운 ▲축하 불꽃쇼로 구성됐다. 제야 음악회는 천안시립예술단, 천안시립합창단, 천안시립합창단, 흥순달 밴드(라이브 밴드), 아르티스(팝페라), 맹두걸스&리화(트로 밴드) 공연이 펼쳐진다. 부대 행사로

는 ▲떡 나눔 행사 ▲토끼 머리띠 나눔 행사 ▲푸드트럭 ▲시민참여 프로그램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 외에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포토존이 운영된다. 이날 행사는 천안시 유튜브를 통해 현장 상황을 라이브로 시청할 수 있다.

최정근기자



# 손흥민-지소연, 'KFA 올해의 선수'에...2위는 김민재-최유리

한국 축구의 남녀 에이스 손흥민(30, 토트넘)과 지소연(31, 수원FC)이 대한축구협회가 선정하는 '2022년 올해의 선수'로 뽑혔다.

'올해의 선수'는 한해동안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대한민국 선수를 전문가와 기자단 투표로 선정하고 있다. 이로써 손흥민은 2019년부터 4년 연속이자, 2013년 첫 수상 이후 통산 일곱번째로 이 상을 받게 됐다. 지소연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며, 통산 일곱 번째다. 두 선수 모두 압도적인 횡수로 역대 남녀 최다 수상 기록을 이어 가게 됐다.

손흥민은 2021/22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 최초로 득점왕에 오르는데 이어,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과 본선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자신의 100번째 A매치였던 칠레와의 친선경기에서 터뜨린 프리킥 골을 비롯해 올 한해 프리킥으로만 3골을 성공시키기도 했다.

남자부 올해의 선수는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위원 19명과 협회 출신 언론사 축구팀장 47명의 투표로 이루어졌다. 손흥민은 총점 182점을 얻어, 148점을 얻은 김민재(나폴리)와 118점을 받은 조규성(전북현대)을 제쳤다. 올 시즌 나폴리에서 주전 센터백으로 뛴어난 기량을 뽐내고 있는 김



민재는 협회 기술파트 전문가 투표에서는 손흥민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기자단 투표에서 뒤져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2위에 머물렀다.

올해 K리그 득점왕, FA컵 MVP에 이어,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2골을 넣는 등 깜짝 스타로 발돋움한 스트라이커 조규성은 생애 처음 올해의 선수 3위에 올랐다.

지소연은 올초 인도에서 열린 여자 아시안컵에서 '월드 클래스'다운 활약을 펼치며 역대 최고 성적인 준우승을 차지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또 소속팀 첼시의 잉글랜드 여자 리그와 FA컵 우승을 이끈 뒤, WK리그로 복귀해서도 여전한 기량을 자랑했다.

여자부 올해의 선수는 각각 여자대

표팀 코칭 스태프와 대한축구협회 여자 전임 지도자, WK리그 8개 구단 감독들이 투표로 선정했다. 지소연이 22점을 얻었고, 올해 여자대표팀의 골게터로 급부상한 최유리(인천현대체절)가 15점으로 2위, 미드필더 이민아(인천현대체절)가 14점을 받아 3위를 차지했다.

최광수/기자

# 환경부, 플라스틱 가소제 분해능력 뛰어난 담수 미생물 5종 발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분해 최적화 연구를 통해 특허 출원 예정

환경부 산하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구미 공단에 인접한 광평천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플라스틱 가소제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분해능력이 우수한 담수 미생물 5종을 최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들 담수 미생물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분해하면서 생성되는 물질을 성장에 필요한 영양원으로 이용하는 호기성(好氣性) 세균이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올해 3월부터 12월 사이에 구미 광평천에서 채취한 시료(하천수, 퇴적토)로부터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분해할 수 있는 담수 미생물 5종을 분리하는데 성공했다.

이들 담수 미생물에 대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분해능력을 실험한 결과, 마이콜리사박테리움 속 균주(DEHP-302)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균주가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최대 1ℓ에 1,000mg의 농도로 오염됐을 때 5일 만에 99% 이

상 분해하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 균주의 분해 능력은 고농도의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로 잘 알려진 고도니아 알칼리로란스(YC-RL2) 균주 보다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분해 능력의 우수성이 입증된 이 균주를 대상으로 분해 활성 최적화 연구(온도, 수소이온 농도, 탄소원, 질소원)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 수처리 또는 토양 오염에 적용할 수 있는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정성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미생물연구실장은 "이번에 발견한 균주들은 연구가 아닌 담수 환경에서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분해할 수 있는 것으로 학술적인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앞으로 담수 미생물의 분해 경로를 밝혀 플라스틱 가소제로 오염된 환경을 복원하는 데 유용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지아/기자

# 보건복지부, 영유아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따른 검사·상담·서비스 정보가 한눈에

보건복지부는 발달지연 등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영유아의 양육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의료기관 및 재활서비스제공기관을 연계하여 검사·상담·재활·치료 서비스의 연속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나성웅)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직무대리 최용선)은 2022년 12월 23일 영유아의 발달단계와 수준에 따른 검사·상담·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고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추진됐다.

그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해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 이후 필요한 정밀검사, 발달수준에 맞는 양육상담 및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없어 양육자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세 기관은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며, 양육자가 검사·상담·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나성웅 센터장은 "모든 영유아가 평등한 출발선에서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라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세 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 강도태 이사장은 "영유아 발달평가 정밀검사를 통해 발달장애 조기발견과 적기치료로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호자의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및 협력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최용선 원장직무대리는 "영유아의 장애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입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조기발견 및 개입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조기발견-개입-재활서비스 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국 배금주 국장은 "발달 지연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부모, 어린이집, 전문가 간의 협업의 발판이 마련됐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현장의 의견을 잘 듣고 필요한 정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성지아/기자

# 에버랜드 '놀러 갈라 위크', 연말 특별 주간 운영

- ◇ '감사·희망' 함께 나누는 연말 스페셜 캠페인 12월말까지 전개
- 매일 저녁 토크쇼, 아티스트 공연 등 고객 참여 '뽕큐 콘서트' 진행
- ... 캐스트들이 직접 준비한 댄스 공연 피날레 장식
- 새해 희망과 감사 메시지 영상에 담아 소장하는 '스노우맨 스튜디오'
- 20:23분에는 밤하늘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쇼 '로맨스 인 더 스카이'
- ◇ 2023개 눈사람, 눈썰매장, 눈놀이 등 특별한 연말 추억 만들기
- 눈썰매장 '스노우 버스터', 총 3개 코스 풀가동 돌입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사장 정해린)이 운영하는 에버랜드가 2022년을 따뜻한 위로와 감사로 마무리하고 희망찬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연말 특별 주간 '놀러 갈라 위크(Gala Week)'를 오는 27일부터 운영한다.

12월말까지 닷새간 매일 진행되는 '놀러 갈라 위크'에서는 토크 콘서트, 새해 소망 영상, 불꽃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들에게 잊지 못할 연말 추억을 선물한다.

□ 먼저 따뜻한 실내 공연장인 그랜드 스테이지에서는 고객들과 함께 하는 '뽕큐 콘서트'가 매일 저녁 5시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된다.

토크쇼 형태로 진행되는 뽕큐 콘서트에서는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공연장을 찾은 고객들의 다양한 사연을

실시간으로 소개하고 즉석 인터뷰, 이벤트 등을 통해 선물도 증정한다.

또한 재즈, 아카펠라, 버스킹, 마술, 브라스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 공연이 매일 2팀씩 릴레이로 진행돼 감이롭고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말까지 이어 간다.

특히 에버랜드에서 근무하는 캐스트(아라바이트생)들이 직접 준비한 스페셜 댄스 공연이 뽕큐 콘서트의 피날레를 장식하는데, 공연을 준비한 'ㅋㅋㅋ'팀 6명은 지난 11월 펼쳐진 에버랜드 캐스트 페스티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기와 실력을 뽐낸 바 있다.

□ 누구나 셀프 촬영을 통해 2023년 새해 희망과 감사 메시지를 영상에 담아 소장할 수 있는 '스노우맨 스튜디오'도 2023개 눈사람으로 가득한 포시즌

스 가든에 선보인다.

간편하게 촬영된 영상 파일은 모바일 전송을 통해 고객들이 직접 소장할 수 있으며, 일부 영상은 편집 과정을 거쳐 포시즌스 가든 LED 대형 스크린에 촬영 당일 저녁 상영될 예정이다.

그랜드 스테이지와 포시즌스 가든 LED 대형 스크린에는 에버랜드가 고객들에게 전하는 희망과 감사의 메시지가 담긴 연말 스페셜 영상도 상영된다.

□ 이외에도 12월말까지 매일 저녁 8시23분(20:23)에는 희망 가득한 2023년을 소망하며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멀티미디어 불꽃쇼 '로맨스 인 더 스카이'가 약 10분간 진행된다.

'로맨스 인 더 스카이'는 첫 만남부터 첫 키스, 프로포즈, 가족의 탄생까지 사랑을 주제로 한 4가지 테마 음

악에 맞춰 불꽃놀이, 조명, 특수효과, 영상 등이 어우러지는 에버랜드의 겨울 대표 공연이다.

□ 한편 2023개 눈사람 세상 '스노우맨 월드', 눈썰매장 '스노우 버스터' 등 다양한 스노우 액티비티와 눈놀이터를 경험하며 특별한 연말 추억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

총 3개 코스가 구성된 눈썰매장 '스노우 버스터'는 4인승 눈썰매에 탑승해 200미터 슬로프를 질주하는 익스프레스 코스까지 지난 24일 오픈하며 모든 코스가 풀가동중이다.

에버랜드 연말 특별 주간 '놀러 갈라 위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버랜드 홈페이지(www.everland.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혜영/기자

# ZOO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영양군 YEONGYANG-GUN

## 길

자연의 아름다움과 휴식을 위한 힐링의 공간

## 물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휴식처

## 빛

자연의 아름다움을 빛으로 담아낸 힐링의 공간

## 맛

지역 특산물로 만든 힐링의 공간

## 심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의 공간

# 영양 들머리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ida YEONGYANG INFORMATION CENTER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바위와 남포도, 삼의계곡, 수계곡, 분신계곡, 침백골, 축백수, 외씨바서길  
 영양의 역사, 음지미방, 서석지, 두물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제민속문화박물관, 반딧불이전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농촌전시관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생태휴양림, 분재수목생태전시관